제356회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27일(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개선의 건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업무보고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 문화재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간사 개선의 건 ····· 2
o 간사(이종배·이동섭) 인사 ····· 2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 3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전해철·김정우·인재근·이종걸·박남춘·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3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3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수·송기헌·신창현·오제세·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3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어기구·윤소하·표창원·유은혜·전혜숙·김병욱·조승래·박주민·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3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8. 업무보고 ····· 4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 문화재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소위원장 개선의 건 또 교육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본격적인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의 찬사를 빚어낸 개회식과 폐회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흠잡을 곳 없었던 운영은 IOC 위원으로부터 역대 가장 훌륭한 동계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폐막식 리셉션장에서 우리 도종환 장관님의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대사를 성공리에 마친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 국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패럴림픽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세계적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사후 활용도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올림픽 자체 수지와는 별도로 인프라 구축에만 약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한 강원도가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겉만 화려한 하얀 코끼리 올림픽으로 남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계에 미투 열풍이 거셉니다. 국가가 지원한 예술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국립극장장 내정자까지도 연루되어 사퇴하였습니다. 문체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도 연구진의 연구비 허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하여 중간 결과조차도 보고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응을 하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광 분야에까지 전 분야에 걸쳐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정홍진 입법조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의 정기 인사로 새로 보임한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한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교문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간사·소위원장 개선의 건입니다.

---

1. 간사 개선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측의 간사를 맡아 주셨던 염동열 간사님이 사임하시고 이종배 위원님을 새로운 간사로 선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이동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간사(이종배 · 이동섭) 인사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님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존경하는 염동열 전임 간사님 뒤를 이어서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염동열 전 간사님은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어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염동열 간사님 하시던 것 이어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당 위원님들 뜻 받들고, 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또 유은혜 간사님, 이동섭 간사님과 서로 협조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염동열 간사님도 수고하셨고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종배 간사님께서는 염동열 간사님보다도 더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간사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이동섭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 잘 받들고 또 평소 다 절친하게 지낸 유은혜 간사님과 이종배 간사님과 함께 정말 생산적인 우리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싸움을 잘 말리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17분)

○위원장 유성엽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염동열 문체법안심사소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종배 위원님을 문체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이동섭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전해철·김정우·인재근·이종걸·박남춘·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수·송기헌·신창현·오제세·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어기구·윤소하·표창원·유은혜·전혜숙·김병욱·조승래·박주민·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유성엽 의사일정 제3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2월 26일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재해부조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재해부조금은 재난에 의한 물적피해에 대한 급여로서 의료기록이 필요한 급여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9조제2항 본문 중 벌금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9조제2항 단서를 통해 그 사항을 등록실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수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사 학위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학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유은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김경수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을 마치면서, 우리 교문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법안 처리실적이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마는 여전히 전체 상임위원회와 비교해서 보면 평균 아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법안 오늘 몇 건 처리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문체 소관 법률에 대해서도 법안소위를 좀 더 가동을 시켜서, 특히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소위 위원장님들께서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업무보고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 문화재청 소관

(10시23분)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과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란 차관입니다.

김영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임창빈 대변인입니다.

김청현 감사관입니다.

김태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영한 국제협력관입니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정인순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이어서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입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정책추진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지식습득과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력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올해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사명하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께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 혁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과 교육혁신의 비전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미래사회에 대비해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쟁·입시교육을 학생성장 중심교육으로 전환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해 연구·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쟁과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협력하며 참여하는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과 STEAM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의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혁신의 방향에 발맞춘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을 표준화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예측할 수 있게 개선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사학혁신위원회 운영으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지자체·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신설하여 지방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산학협력 등 핵심적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4차산업 혁명 혁신선도대학을 신규 지원하고 이공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이 미래지식 창출과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식이 외부와 연결되고 활용되어 미래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단순하게 개편하여 대학이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 직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

생·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직업교육을 내실화해 가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인 매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차산업 혁명 관련 K-MOOC 강좌를 확대하여 K-MOOC를 온라인 자기개발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의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친화적인 학사구조로 변화시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에서 국가장학금 확대까지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순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누구나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한글과 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밖 학습경험도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인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부담을 덜어 주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게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도움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파란 사다리 사업'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등을 새로 도입하고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르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균등 선발을 의무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보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용 확대와 부처 합동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위험지역에 대한 학교 내진성능 보강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단축하고 노후된 시설·기자재를 교체하여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과 영양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셋째, 현장 자율성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한편 협력은 강화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 개선을 통한 교육정책 신뢰 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학기 대비 학생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교시설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를 추진한 학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학교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 여진 피해학교에 대한 점검 및 복구 지원은 물론 모든 학교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미세먼지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 대상 불법영업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학생 진로체험학

습 안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까지의 진로체험학습을 위해 경기장에 방문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은 물론 경찰청,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패럴림픽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계속하고 교육부 학생 진로체험학습 현장지원단도 패럴림픽 종료 시까지 지속 운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올림픽 관련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가 진행 중으로 우리 부는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상황을 분석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환 대상 제외 직종 종사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시도별 고용안정 확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른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 종료 관련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초등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기초부터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영어교육컨설팅단 등을 활용해서 영어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선행학습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영어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 1·2학년 대상으로는 학생·학부모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현황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교육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안 발생 시 교단에서 퇴출하도록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고 소청심사 시에도 징계 감경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교육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대학교원의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 온라인 연수 등을 확대하고 예방교육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는 올해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사람·기업·지역이 상생하는 구조, 문화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 사회와 세계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중 국정감사 이후 임명된 주요 간부를 소개드

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경 차관보입니다.

황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입니다.

박영국 국립한글박물관장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용훈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황현산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윤금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입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승열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입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입니다.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첫째,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과 규정의 정비로 공정한 경쟁 기반과 제도를 조성하고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 환경을 조성·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구축하여 반칙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저작권의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문화 기초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 각 분야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한지·한복·한식 등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균형 있는 게임문화, 저작권 존중 등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미디어·콘텐츠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 육성 등 지역에 문화 씨앗을 뿌려 활력이 넘치는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문화관광콘텐츠를 특화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문화의 일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문가치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및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활 속 가까이에서 즐겁게 누리는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생활문화 거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서점을 독서문화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활동 거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다양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섯째,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등 편안한 환경에서 누구도 빠짐없이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유형별 펀드 조성, 완성보증 신규 공급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뉴 콘텐츠를 제작하고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등으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홉 번째, 해외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시장 정밀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동남아·인도 등 도약·신흥시장의 집중 관리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수준의 체육인력 양성과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열 번째, 문화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현장 기반 행정으로 현장에 더욱 밀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4월에 마무리하고 백서 발간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림픽 현장의 업무로 인해 위원님들의 평창올림픽 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총 107만 9000매가 판매되어서 목표 대비 100.9%가 판매되었고 141만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방문하여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운영, 수송·교통, 선수촌, 관람객 안내, 보안 및 안전 등 완벽한 대회 운영으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북한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평화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 상황입니다.

3월 9일부터 열흘간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바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참가 선수단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선수 및 관람객들이 호텔·식당·화장실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입니다.

지난해 예술 분야 일부와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 등과 지속적으로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예술 분야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연루자의 공무담임 제한 및 공적 지원 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도종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재청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새로 임명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모 차장입니다.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조현중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비전은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대별·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유적 보존·정비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가야총서 발간 및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유적을 보존·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라왕경 및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여 전통적 품격을 갖춘 고도로 보존해 나가고,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궁궐 및 왕릉 능제를 복원·정비하는 한편 내년 3·1 운동 100주년에 맞춰 항일 독립문화유산을 등록·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55년을 맞아 새로운 전승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승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종합조사 및 기록화, 전승자 소장자료 목록화 등 무형문화유산 지식자원을 축적하여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역사문화환경 규제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문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분야 일자리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재 상시 돌봄 인력을 작년도 570명에서 금년도 649명으로 확충하고 문화재 현장 안전경비원도 373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궁궐과 왕릉의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위해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고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수표 시스템 및 외국인 관람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유학기제에 맞춰 문화유산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유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봉수유적, 고분군 등 문화유산자원의 조사·지정과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전국 151개소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 교육 체험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지킴이 지역행사 다각화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의 범국민 확산 등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문화재의 내진성능 평가기준 마련, 경주지역 등 지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위험지도 구축 등 지진 위험에 더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설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화소수와 야간식별 능력을 높인 CCTV를 작년 354건에서 금년 424건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재 방재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돌봄사업 수행체계 안정화를 위해 문화재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통합관리 및 평가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제도 합리화와 이력관리를 통한 문화재 수리체계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리제도 개선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유산 가치 증대를 위해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하여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남해안 갯벌 등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지속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분야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여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특별전 개최, 문화재 스토리 지도 발간 등 홍보자료와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올림픽 참가 내·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접할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내년 3·1 운동 100주년 계기를 맞아 국외에 있는 사적지의 보호·활용을 강화하고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북미지역 국외문화재 보호·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협력여건에

힘입어 7차 조사로 중단된 개성 고려궁성 남북 공동 발굴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라오스 등 문화유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경험, 기법 등을 전수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정책과제로 설정된 주요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종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기관장이 새로 선임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서면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유성엽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선교 위원님 자료요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교육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3차에 걸쳐서 대학 당국하고 또 학부모 참여했나요? 회의 했지요? 했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그 회의록을 요약본이라도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보내 주지 않고 있어요. 입학금 폐지가 국가예산, 국민세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큰 변혁인데 회의 자료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히 있어야만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오전 안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도 조금 제가 건의드릴게요.

국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결과보고가 전혀……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들께는 결과보고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우리 교육부로 치면 여러 교육청의 비리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청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것 마저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 선정 과정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께서도 선정 당시의 의혹에 대한…… 안민석 위원님 끄덕하고 계시잖아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보내 주시고요.

새롭게 역사박물관장 되신 주 관장님, 취임하신 지 좀 됐는데 그간 취임 이후에 역사박물관 게시물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도 오전 내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또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김병욱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가급적이면 자료제출 요구를 본인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급한 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을 둘러싼 얘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18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8일 빙상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문에는 남녀 선수 4명씩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8일 홈페이지에 보면 '선수 선발에 따른 대회 참가 시간 할애 요청'이라는 제목인데요. 선발된 국가대표가 갑자기 한 명씩 늘어요. 남자 5명, 여자 5명, 10명으로 늡니다. 왜 2명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공지도 없고 본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선수 선발의 정원이 왜 2명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빙상연맹의 답변을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간단한 답변이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민기 교수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계의 성폭력, 성피해자들의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교육부에 제보된 성비위 관련 건수가 1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0명 이상의 교수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보받은 각 학교 그리고 교수들의 성 비위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민기 교수 건에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청주대 간의 공문 이첩 내용, 그다음에 징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본 의원실과 협의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교육부는 국공립, 사립 포함한 전 대학의 2017년도, 2018년도 조교 현황을 좀 주시는데요. 대학별로 인원을 비교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형태, 고용기간, 임금에 대해서 전 대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요. 또 대학별로 2017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청소·경비노동자 현황,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정부 출범 10년 전부터 성폭력 관련해서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국비지원한 내역 또 그분들이 소속한 단체에 포함된 국비지원에다가 지방비지원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 자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보된 성폭력 관련 제보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또 자료요구?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잘 치르셨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선수단이 열심히 해서 메달도 많이 땄는데 지금 메달 딴 선수들의 포상금이 종목마다 너무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같은 은메달을 땄어도 관심을 끈 컬링 선수들은 포상금이 3600만 원이고 그리고 스노보드의 은메달은 얼마예요, 2억 30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메달별로 종목별로 포상금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성엽 이제 자료제출 요구 이 정도로 마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선교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작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아직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오히려 다음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늑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간사위원님들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일단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제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정부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세연 위원님 안 나오셨고,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평창올림픽에 대한 외신의 평가, 흠이 없는 것이 흠이라고 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격상시킨 장관님 이하 문체부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고 평창올림픽의 옥의 티인 빙상연맹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노선영 선수 올림픽 출전이 번복됐고 또 코치의 폭행, 심석희 선수의 선수촌 이탈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단 나이제한 조항의 신설, 팀추월 대표팀 따돌림 사건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빙상연맹은 보이지 않고 선수들만 고개를 숙이면서 돌아가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빙상연맹 사태는 또 엘리트체육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국민들 컬링 때문에 힐링되었다고 하는데 빙상은 컬링과 대비가 됩니다. 컬링 선수들이 취미 차원의 클럽스포츠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에 바탕을 둔

풀뿌리 체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방향, 그리고 빙상연맹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빙상연맹 자체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부 내에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포츠 비리조사, 분쟁조정 그리고 정책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드러난 이 문제점들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의 육성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패럴림픽까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부분이 생활체육이라는 점, 생활체육의 육성과 진흥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진흥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일단 빙상연맹의 자정 노력을 좀 지켜보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이걸 발족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빙상연맹에 맡겨 두기에는 하세월일 것 같고 문체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인 미투 운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화예술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이지요.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인데 2015년에도 SNS를 통해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일부에 대해서 시범조사만 실시하고 종합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었고요. 지난 며칠 전이지요, 2월 20일에 겨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문체부가 예술인 복지법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성폭력·성차별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을 아까 일부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박경미 위원 그 성폭력 실태조사 예산 3억 원 증액 신청하셨었지요? 그런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난주에 지시를 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SNS가 성폭력 피해 고발 창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가해자는 해당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작품 심사 또 캐스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지요. 이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창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SNS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성폭력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영화인 신문고, 영진위의 성폭력신고센터.

그런데 영진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성폭력 신고는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 이거는 주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까 성폭력은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지금 문체부의 역할이 성폭력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해서 여가부에 연결해 주는 단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고, 적극적인 역할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언급하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이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부 내에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가 여성영화제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이혜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성계 인사들 8명이 중심이 되어서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고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혜경 위원장님과 지난주에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예술인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우선 특별신고 상담창구가 제대로 운영돼서 SNS가 아니라 제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영이 필요하고 저희는 지원하고 그리고 또 여성부와도 상의를 하고 경찰 쪽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이 여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남성우월주의 사회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한 인식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뿐 아니라 지금 문체부가 가해자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자격 배제 이런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미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명문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행법을 개정하실 건지, 아니면 12월 제정 예정인 예술인권익보장법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가부 산하기관이지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만들었고 예술인복지재단도 이거를 올려놨는데요. 문체부에서 또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그래서 여가부의 가이드라인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여가부의 여성인권진흥원과 저희 부 내의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또 그리고 특별신고 상담창구 등의 역할 분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해서 성희롱 문제와 그다음에 성폭력 문제 이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여성인권진흥원의 도움을 받고 또 경찰의 도움과 수사 협조 요청 같은 것들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 또 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17년 국감 때 국립병원 측에서 간호수련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전남대병원 같은 데에서는 3년치, 6억 원의 임금을 지불토록 한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또 국립대병원에 노동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지금 영상 좀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십시오.

(11시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장관님 잘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이러한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장정숙 위원 오늘 뉴스 보고 아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닙니다. 이 전번에 나올 때……

○장정숙 위원 오늘 아침 내내 JTBC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장관님 2010년부터 국립서울대병원이 낸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1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수련생이 하는 심리검사 같은 업무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검사하는데 4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입니다. 또 정해진 수련기간을 넘겨 가면서 일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다 국립대학병원이 무급노동이에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유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저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보셨겠지만 최저임금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정식 직원처럼 부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수련생이니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버젓

이 국립대학에서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 이게 책임을 지지 않는 국립대병원들의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도 저 뉴스를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나 저희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국립대병원이 피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놓고 계실 것 같으면 아싸리 보건복지부로 넘겨주세요, 자신이 없으시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는 싫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관심 갖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데가 아니고 국립대병원입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거는 할 말이 없지요, 국민들한테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지금이라도 수련기관 현황 파악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그러시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 확실히 지급하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근무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수련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수련생들인데 천차만별의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임금은 얼마를 줘야 한다, 처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한다,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관계부처가 보건복지부니까 협의하셔서 개선안 마련하시고 의원실로도 꼭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도종환 장관님, 정말 평창올림픽 성공리에 마치게 아주 너무너무나 애쓰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최근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장정숙 위원 여기 윤호근 단장님 나오셨던데, 혹시 임명하실 때 무슨 서류 제출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서류요?

○장정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장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명을 하시려면 이력서랄지 경력서랄지 그런 것, 상식적으로 기관장이 인사 검증을 하려면 정확한 이력과 경력이 증빙된 서류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이 될 거라고 온 국민들은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이 임명하신 국립오페라단장이 허위경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뭐를 받으셨나 하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허위경력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기사를 봤기 때문에 문체부에다가 이력서 포함해서 경력증명서, 신원진술서 같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연전통예술과 모 주무관이 이런 답변서를 보냈어요.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문체부장관 임명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모과정 안 거쳤고 서류제출이 없다'.

장관님,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말씀하신 그런 서류들을 검토하지 않고 임명하는 경우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장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답변을 주무관이 보낼 수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건 뭔가……

○위원장 유성엽 그 과장이 지금 나왔습니까? 전통예술과장이 오늘 출석했어요?

○장정숙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때문에 잠깐만,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장관님 임명사항이기 때문에 별

도 공모과정 안 거치고 서류 제출이 없다고 조금 아까 화면 보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담당 주무관이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보냈더라고요.

장관님, 이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사실이 아닙니다.

○장정숙 위원 서류도 없이 임명했다는 거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장정숙 위원 말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럼요.

○위원장 유성엽 답변 좀 중지하시고 그 과장이 오늘 나왔어요, 전통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국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과장은 안 나왔어요? 국장이 발언대로 한번 서 봐요.

왜 자료 제출 답변을 저렇게 해서……

○장정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님, 답변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된 자료와 경력 확인 다 했고 인사 검증도 다 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왜 본 위원한테 못 보내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경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체부에 대해서 아주 불쾌합니다.

이런 답변을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그런 답변을 쓴 경위를 제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데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할 건지 뻔히 알면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장관님, 저는 이렇게 문화계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진원지가 문체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립극장장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 말까지 임명해야 되는데 다시 취소되고 재공모했는데 또 내정됐던 분이 미투 운동 대상자지요, 그렇지요? 어저께 관두셨잖아요. 사퇴 처리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답변드릴까요?

○장정숙 위원 아니, 그래서 문체부의 인사 검증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한테 요청드리겠는데 오페라단 단장 임명 과정에서 장관님께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경력에 관련한 자료들 지금이라도 갖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왜냐하면 오늘 윤호근 단장 나오셨는데 여기 기관장 이력서에 딱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말썽이 됐던 데이터가 음악코치 부지휘자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

○위원장 유성엽 이따 보충질의하시고요.

그 자료를 오페라단장 응모하고 제출한 자료를 이따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장관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임명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현재 임명된 이사장하고 경쟁자,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됐잖아요. 거기 이력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나경원입니다.

문화부장관께 자료 제출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치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북한 이슈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머리 감독도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단일팀 하려면 한 4년 정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단일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부에서 북한선수단이나 응원단이라든지 북한의 공연단에 대해서 지원한 액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나경원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패럴림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패럴림픽 전환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 전환기를 하면서 제대로 전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올림픽 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치나 런던이나 리우나 다녀 보면 항상 어딘가 구석에는 올림픽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패럴림픽 선수들과 패럴림픽 가족들에게는 아픔이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전환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나경원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알파인스키의 경성현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을 입고 선수단 결단식인 1월 24일에 참석했는데 다음 날 스키협회에서 올림픽 출전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통보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하고 주최국의 인원 배정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얼버무리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오늘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어떤 조사에 보니까 우리 사회 여성들의 75%가 성희롱·성폭행 등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3%만이 신고 등 대응을 했다고 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된, 왜곡된 성의식이라든지 성 관련된 문화가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새 참으로 참담한 데요.

물론 문제는 단순히 이것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을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닌가 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런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문화예술인이 지금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중에, 굳이 이 미투 운동조차도 좌우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소위 예전에 좌파 예술인이라고 지목된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화예술계 특히 문화부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짐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요현안보고를 이 업무보고에 정식으로 편철도 못 하고 뒤에 주요현안보고 별지로 지금 보고를 했어요. 제가 보면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걸 별지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현안보고에 긴급히 마지막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하면서 추진현황 대책을 얘기했는데요, 아주 졸속으로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방대책 해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오늘부터 별도 지정 시까지 운영하겠다, 실태조사도 급하게 문화예술계·영화계·출판·대중문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문화부가 그동안 평창올림픽 때문에 바쁜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는 부처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했는데 이렇게 급조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특히 앞으로, 문화부에 제가 보니까 그동안 예술 분야 성폭력 시범 실태조사는 한 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작년에 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때도 보면 아주 조사대상을 그냥 협소하게 하셨어요. 문학·시각예술 분야, 예술활동증명자 해서 아주 협소한 분야, 조사대상이 협소했고 조사기간도 짧았습니다.

이번에 오늘 급조된 주요 현안보고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폭넓게 제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응답률이 낮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응답률을 높일 것인가? 조사하는 형식만 갖추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권력형, 갑을관계에 의한 성폭력·성희롱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중문화예술법에 업무상 고용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처벌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업무상 보호관계나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갑을관계에 의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법안을 개정할 것을 제출하겠지만 문화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중문화예술법이 담지 못하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는요, 실질적으로……

1분만 주시겠습니까?

교육부는 오늘 예방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교원의 경우에 이러한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초중고 교원 중에서는 징계받은 교원 중에서 47%가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추행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1월에서 3월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은 마련하셨지만 좀 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주시고, 징계가 경미한 경우 또 그대로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징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학교에 남아 있지는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2015년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경원 위원 아직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안보고를 별도 편철하게 된 이유는 중요한 현안이 동계올림픽 결과보고와 미투 운동과 관련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2개가 큰 현안인데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폐회식 이후에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따로 편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난해부터 실시한 실태조사가 조사대상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2016년 하반기에 문학계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계와 시각예술 쪽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권익보장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 동계올림픽은 25일 끝났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 여기에 같이 편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학계 얘기만 하시지만 대중문화 예술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래서 실태조사를 문화부만이 한 것은 아니고 여성문화예술연합과 함께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안민석 위원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주신 도종환 장관님, 노태강 차관님, 이기흥 회장님께 치하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성공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나타난, 특히 팀 추월 경기에서 나타난 체육계 파벌 문제로 상징되는 체육 적폐, 이것을 이번 기

회에는 철저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안민석 위원 일단 팀추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니요.

○안민석 위원 조사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안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빙상만 보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8개월 동안 빙상 적폐청산을 했더라면 팀 추월 그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빙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체육 적폐청산의 성과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지금 힘들게 힘들게 체육적폐청산TF팀 구성도 했지만 저에게 성과 점수를 물으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낙제'라고 봅니다. 청산위원회 내에서 청산 대상이 되어야 될 위원도 포함돼 있다는 게 체육계 지적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체육적폐청산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것을 다시 연장해서 제대로 된 위원으로 구성한 체육적폐청산위원회 2기를 출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때 제대로 된 개혁적인 인사들을 위원으로 하시고, 개혁 대상이 되는 인물은 절대로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안민석 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체육 전반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제안 드립니다. 특히 합숙소 문제를 들여다보십시오. 합숙소에 젊은 여자 선수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 지도자와의 관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합숙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해서 운동선수들 인권 실태조사를 제안 드립니다. 이미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운동선수들 인권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 2007년도에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인권 실태조사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김종 차관이 정유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이것은 없애고 체육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말 신뢰 있고 독립성이 있는 또 조사권도 부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체육 적폐가 빙상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 만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대한테니스협회 감사보고서인데요. 자체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 보고서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뭐 이십 가지 이상의 사항이 지적됐는데요.

대한체육회장님도 잘 들어 보십시오.

회장이 조카를 채용해 가지고 보수를 지급합니다. 선수 육성금을 횡령합니다. 선수들은 지원금이 없어서 주니어 선수들이 코치 없이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는데, 회장이란 사람이 그랜드슬램에 협회 경비를 사용해서 다닙니다. 이거 한번 다니면 최소한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자체 협회 감사가 대한체육회로 올라가면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되어 버립니다.

대한체육회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테니스협회 감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게 12월 30일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것은 대한체육계에서 이제 체육 적폐청산의 의지를 담아서 대한체육회가……

여쭙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입니까? 개혁의 주체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주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예.

○안민석 위원 그 출발점으로 테니스협회 감사결과를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독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예.

○안민석 위원 일어나신 김에 남북체육 교류가 활성화될 텐데요.

대한체육회 내에 남북체육교류위원회가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평화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내에 남북체육교류위원회 회의가 몇 번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정례적으로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10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가 남북체육 교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북체육교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요.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장관님, 저는 이번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계기로 해서 많은 감동과 의미와 메시지를 줬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이 성과를 2020년 동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2022년?

○안민석 위원 2020년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2022년인데, 베이징 동계……

○안민석 위원 동경 올림픽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동계 올림픽이에요?

○안민석 위원 동경 올림픽, 하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오케이.

○안민석 위원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팀 경기에서 단일팀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또 다시 촉박한 시간을 앞두고서 단일팀 구성하면 이번처럼 여러 논란이 있게 됩니다.

북경 올림픽 앞두고서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딱 2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못 했습니다.

이제 2020년 동경 올림픽에 아주 대대적인,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잠깐, 30초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만, 오후에는 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저는 김상곤표 정책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문화·체육·예술 교육 말이에요. 예술교육·체육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문체부하고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인프라, 지도자나 시설들을 학생들이 이용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두 부처 간에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협의를 장관님과 하셔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예체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대로 안 그래도 문체부하고 협의하면서 문예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문예체 교육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협의 결과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김상곤 장관 취임 이후에 설익은 정책들을 너무 빨리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동안 조금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난해 12월 27일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는 영어수업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을 정책 일관성이 떨어

진다는 것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발표를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금지를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의견 수렴을……

○이장우 위원 지금도 장관께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지금 그 당시 신익현 국장은 없을 테고, 하유경 과장 여기 와 있어요? 안 왔어요?

차관,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 장관 지시사항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이장우 위원 지시받아서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사무관하고?

이따 오후에 하유경 과장, 백봉현 사무관 그리고 권지영 과장 다 여기 회의장에 참석하라고 그러세요. 확인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정책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국장·과장들, 사무관들이 입안을 해서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장관의 지시사항인데 결국 그 책임은 국장·과장들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금지부터 유예까지……

○이장우 위원 금지하면 얼마나 부작용이 많다는 것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말씀 주셨습니다.

○이장우 위원 방과후학교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 시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초등 1·2학년……

○이장우 위원 교육감 하시고 계속 하시는 과정에 자제분들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교육당국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 오셔 가지고 2017년도 8월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학부모들 저항이 거세니까 '1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특성화고교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2020년도에 폐지하겠다'고 해 놓고 지난번 11월 사건 직후에 바로 '즉시 폐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또 2017년도 11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등학교 폐지하겠다' 해 놓고 '학생 우선 선발권만 폐지하겠다'. 2017년도 12월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 그래 놓고 '1년 유예하겠다'. 그래 놓고서 학부모들 거세게 반발하니까 네 번이나 입장을 번복했어요. 수업금지를 발표하고 '금지가 미확정이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서는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게 지금 장관이 지휘하는 교육부의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 놓고 장관께서 국장·과장들한테 책임을 다 미루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설명 듣지 않아도, 안 봐도 이건 내용이 드러나 있는 내용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너무 일방적인 규정들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 국장이랑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정책은 아주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관의 개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게 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영어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에서 만약 그걸 금지하면 그 학부모들 아이들 어디로 가겠어요? 학원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이 추진한 핵심정책이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3년 6개월 동안 유예한 게 이전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제안을 해서 만든 공교육 정상화법의 시행령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종결된 상황에서 그 아래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학부모들하고 상의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충분히 국회에 와서도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해야지 발표했다가 아니다, 미루겠다, 다시 검토하겠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당시에 1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 1년을 유예한 것입니다. 보다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장우 위원 유예하지 말고요, 유예하고 그렇게 면피하지 말고 제대로 다시 하세요. 면피성으로 1년 유예하겠다 그러고 워낙 지금 학부모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감당 못 하겠으니까, 청와대에다가 학부모들이 항의를 엄청 해대니까 결국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학교 청소하는 근로자나 경비하는 분들 몇 분이나 실직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대체로 한 5개 대학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장우 위원 5개 대학이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대학의 고용들 거의 다 줄였어요. 어떤 대학은 나이 순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최저임금 인상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이 최저임금 때문에 대학에서 고용이 잘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파악도 안 해요? 정부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데 그것 하나 통계를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는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대학조교들 지금 현황 파악해 봤어요?

장관님, 대학조교들 대개 월 얼마 받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대학조교들은 대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대학조교들도 줄이고 있고요, 대학 시간강사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등록금 동결했지요? 거기에다가 계속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러니까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등교육 지원을 좀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장우 위원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면밀하고 세밀하게 교육부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모든 게 장관 책임이에요, 직원들 책임이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 좀 제대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다 1분씩을 추가로 더 쓰셔서 8분의 시간이 되고 있어서 오전 질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가 오후에 또 있을 예정이니까 7분 시간을 가능하면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 지난 2월 21일 날 현충사 현판 관련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신동근 위원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일단은 두 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동근 위원 존치하는 걸로?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신동근 위원 존치 이유가, 의미가 있다는 게 뭔 얘기예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일단 건축물이 생성된 것하고 현충사 안에 두 개의 현충사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숙종 때 해서 회철이 됐다가……

○신동근 위원 짧게 보면 현충사 건축물과 숙종 현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하고 지금의 건축물 자체가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다 이런 이

유를 냈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간에 일본의 침략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 사당에 일본 황군에서 복무했던 박정희 현판을 건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건축물의 재건립까지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현충사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되고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곤 장관님, 영어교육 문제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찬성이 51.2%, 그러니까 폐지. 그다음에 초등교사는 51.3% 방과후 영어 금지가 찬성이 다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또 국내 연구로 보더라도 조기에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정서나 교육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연구 결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부총리님, 이 법이 이미 2014년에 제정 당시에 3년 6개월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신동근 위원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 갈등 논란이 불거집니까, 3년 6개월이나 준비를 해 왔을 텐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2016년 말에도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학부모라든가 학교 관계자, 시·도교육청에게 이 사안을 고지하고 또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사안이 조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맞벌이 부모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우려 그리고 사교육으로의 풍선효과 등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예측이 됐지요. 3년 동안 준비를 했으면 지난 정부가 됐든—지난 정부가 더 길었습니다마는—현 정부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교육부가 이런 갈등관리라든지 소통이나 능력 또 소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부모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도 적절하다라고 하지만……

○신동근 위원 요약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러나 사교육과의 관계성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조차도 그러는데 대학원까지 공부하고도,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대화는 둘째치고 자기소개를 영어로 2분 동안, 3분 동안 하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해요, 현실이.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신동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소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영어교육을 시켜야겠다, 조기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심리가 저변에 있기 때문에 원인이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1·2학년 때 하느냐, 3·4학년 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교육 과정만 정상적으로 따라가면 누구나 회화가 가능한 그런 공교육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영어는 3학년부터 아주 기초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실용영어가 강화되는, 그래서 정말로 쓸 수 있는 영어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래서 지금 영어교육 내실화 자문단 구성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일본이나 핀란드 이런 데 다 3학년부터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갈등 생기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불안심리 또 공교육 해 봐야, 따라가 봐야 영어회화 못 한다는 이런 현실적 요건들이 다 감안됐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다음에, 도종환 장관님!

어쨌든 평창올림픽이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사소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매끄럽게 준비를 해 왔고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필요하고 또 조직위도 저비용·고효율의, 실제로 이걸 통해서 경제성장 효과도 가져오고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남북이 하나 되면서 평화올림픽이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특별점검을 했지요? 그중에서 문체부 소관기관 별 문제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공공기관 312건, 공직 유관단체 104건의 문제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신동근 위원 마무리하게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경미하기는 합니다마는 33개 기관 중에 33개 기관 모두가 다 적발이 됐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세종학당 2개 기관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유형상으로 보면 규정 미비라든지 경미한 부분이 많게 나옵니다마는 보면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점검한 게 있었지요? 그때도 보면 반복적으로 되는 데가 정동극장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에 또 적발이 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은 13년부터 17년까지 지속적으로 5년간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개선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장관님, 올림픽 치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고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과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해 주신 분들 또 성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올림픽을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도 많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많은 덕을 본 것이 저는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쯤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 국민들 이상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선수가 몇 명이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선수는 23명 왔습니다.

○김석기 위원 선수가 23명 왔는데 대규모 응원단이 왔고 대규모 공연단이 왔고 또 북한에서 대표단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체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마음껏 체제 선전을 했습니다. 북한의 관현악단을 통해서 또 응원단을 통해서 북한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권탄압 국가,

그리고 주민을 굶겨 가면서도 죽어 가는 국민이 있는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한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독재국가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러한 체제 선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했고 또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긴밀히 공조하는 노력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북한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김영철 때문에 지금 나라가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폐막식에 김영철이 참석했는데 김영철이 폐막식 참석자로 명단이 왔을 때 정부 대책회의에서 장관님이 참석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는 올림픽을 운영하고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어쨌든 장관님이 준비하신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김영철이라는 자가 어떤 인물입니까? 잘 아시지요?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통해서 우리 젊은 군인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 김영철은 절대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김영철이 한국 땅에서 새누리당 정권 때 회담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김영철과 지금 김영철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2014년도 회담은 군사회담이었습니다. 우리 측도 국방부의 고위간부가 나갔고 북측에서는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북한 측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김영철은 우리 국민이 온 땀을 흘려서 준비한 올림픽의 폐막식에 귀빈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철은 우리 서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호화호텔에서 스위트룸이 있는 전 층을 빌려 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서 귀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천안함 유가족들이 김영철이 폐막식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절규했습니다. 내 자식은 군대에 가서 목숨을 버리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의 국군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살인원흉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대접을 받고 버젓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국가를 지키다가 목숨을 버린 우리 자식이 세월호보다 못하느냐, 우리 유가족의 마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천안함 유가족들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통한 심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북한의 술책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막식에도 소위 북한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고 폐막식에도 김영철이 왔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 정부가 받아낸 답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더 있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하나마나한 답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지금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바로 얼마 전에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이번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하고 응원단 또 관현악단이 많이 참석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환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잘 해 줬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발을 중단하고 정말 진정한 핵을 포기하기 위한 그런 대화에 나선다면 정말 더 바랄 바가 없고 우리 정부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 다닌 장관님과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후에 공항을 가야 되는데요. 다음 질의순서인 손혜원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서 그다음 질의를……

○손혜원 위원 1분만 하세요.

○위원장대리 유은혜 손혜원 위원님 질의 시간을……

○손혜원 위원 예, 빼겠습니다. 이따 오후 것 1분 빼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해서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오전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요. 짧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시간까지 손혜원 위원님 시간으로 포함해서 오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아까 체육 적폐청산 TF가 낙제점이라는 표현이 수고하신 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신상발언으로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가령 지난 정부 시절에 김종 차관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찍혀 내린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장이나 또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두 번이나 끌려가서 조사받고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쫓겨난 김나미 사무총장이나 또 모든 직책에서 다 쫓겨나 버린 강광배 교수나 전명규 교수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아무도 안 불렀어요. 왜 그랬는지 그것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조사하라고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낙제라고 한 것이고요.

안현수 귀화 문제가 알려진 것으로는 전명규 교수의 책임으로 알려져서 그것 때문에 빙상연맹 부회장을 관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이것을 적폐청산위원회가 조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안현수가 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러시아 귀화가 전명규 교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적폐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되는데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안현수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전 교수님은 러시아 귀화 이후에도 좋은 사제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낙제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저의 표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언짢아하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이것 지금 말고 오후 질의에서 2분 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유은혜 지금 오전에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요. 일단 빨리 하시고 오후에 더 추가로 하십시오.

○손혜원 위원 우리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볼 때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까에 대해서 정말 불안했습니다, 의문이 갔고. 그런데 모두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성공했다고? 그런데 그 올림픽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외국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위원들만 트집을 잡으시네요. 저는 제가 발표할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 말은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공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흥행을 이뤄냈고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스톱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전환해서 성공으로 이른 것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올림픽이 시작되고 닷새, 열흘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별안간 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구해야 한다고.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100%가 넘게 초과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올림픽을 치러서 성공한 다음다음 날 이 자리에서 무슨 북한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수혜를 1등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리고 저는 참 이번에 올림픽에서 도종환 장관님께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조용히 그 힘든 일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기껏 본인이 표현한 것은 아까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개회사 축사 한마디에서 그렇게 빛나는 축사를 해 주셔서 모두를 감동하게 만드셨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한마디 티도 내지 않으시고 했던 그 과정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태강 차관님께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겠습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칭찬에 관련된 것들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문화재청 많이 질타할 게 있는데 칭찬 먼저 하고 오후에 질타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장 하나 바뀌고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017년 8월 24일 날,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포에 있는 1937년에 만들어진 '조선내화'라는 지금은 비어 있는 공장입니다.

여기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유달산과 바닷가 사이의 가장 최고의 땅에 14층짜리 유달산을 가리는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고 바로 진행을 한 일이 이 조선내화의 주인들이 문화재청에 어필을 해서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이 조선내화라는 건물이, 8000여 평에 달하는 아파트가 될 뻔했던 건물이 근대산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화재청에 대해서 많은 불만도 있고 오후에도 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문화재청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을, 아파트가 될 뻔했던 이 자리를 지정을 그 빠른 시간에 해내고 그리고 아파트 허가를 무산시켰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화재청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이 조선시대 유산만을 문화유산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인리 발전소 그 화력발전소의 굴뚝도 산업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화진 묘역이나 절두산 성당도 이것은 근대문화유산, 우리 개화기에 있었었던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근대문화유산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청에서 그리고 문화부에서 이것을 보호하기 시작해야 제대로 된 문화유산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도 문화부와 문화재청이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 역사에 기반한 그런 도시재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전 질의는 깔끔하게 1분 더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지금 꼭 하셔야 되나요?

○이장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은혜 빨리 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대리 유은혜 압축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고요.

○이장우 위원 위원회 회의는 여야가 시간과 또 진행을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위원회 회의를 지금처럼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분 추가질의 문제도 지금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차라리 8분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싶다는 분은 하고 또 어떤 분은 7분 30초 쓰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야당 위원들 트집 얘기를 하시고 '말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석기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지금 올림픽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해서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사실은 지금 남북한이 휴전 중입니다. 사실은 주범은 전범이나 같습니다. 전범은 전범재판소에 회부해 가지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유은혜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지금 너무 길고 적절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야당이 트집 잡는다고 하고 또……

○손혜원 위원 트집 아닙니까?

○이장우 위원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손혜원 위원 트집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우 위원 손혜원 위원님, 앞으로 말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누가 먼저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성공한 것은 칭찬하십시오, 하실 때는.

○위원장대리 유은혜 위원님들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상대 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런 식의 비평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기로 우리 상임위 내에서는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의사진행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참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오전 질의가 시간에 쫓겨서, 염동열 위원님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염동열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 12시 반이 넘을 것 같아서 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교 위원 도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문체부 관계자들께서 이번 동계올림픽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는 우리가 차츰 또 얘기가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고 또 될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사고 없이 잘 치러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외국의 전문가가 '이번 평창올림픽은 100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요. 됐어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흑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KTX니 이것은 올림픽의 직접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지역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쓴 바가 있고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적자를 예상했는데 흑자로 나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개막 직전까지 티켓 판매율이 70%. 그런데 마지막에 뭐 100%가 넘었다고, 100% 넘으면 어떻게 100%가 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공기관, 공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또 지자체 이들의 이번 동계올림픽 입장권에 대한 참여 실적을 좀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까 안민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도표를……

○한선교 위원 아니, 그냥 보내 주세요. 나중에 오후에 또 얘기하면 되지.

축사를 얼마나 잘하셨기에 여러 위원들이 축사에 대한 칭송을 하시는데…… 저는 문체부의 걱정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강릉의 빙상시설물에 대한 사후,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거나 폐쇄하거나 할 것인가가 아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저는 어떤 기념 차원에서도 아니면…… 정말 이번 올림픽은 빙상·설상 할 것 없이 정말 좋았던 것은 먼저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갔었는데 거기는 TV에서 국가별 메달 순위를 하는데 우리는 금메달 5개, 6개 땄다고 '우리가 몇 위야' 얘기만 하지 저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총수, 금·은·동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번 올림픽 끝나고는 '열몇 개 우리가 최다 메달을 땄다' 이것은 굉장히 선진국으로 가는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강릉스포츠 아이스시설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그냥 없애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한선교 위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최문순 지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제안이지요, 아이디어 차원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직……

○한선교 위원 이것 아주 그냥 적자는 지금 올림픽도 사실 따지면 흑자, 적자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갖다가 연장시켜 가지고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우리가 강원도에서 마식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의견의 하나로 문체부에서도 받아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진오 관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시지요.

이것 뭐 케케묵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진오 교수는 역사 교과서 집필에도 관여하신 바가 있지요. 천재교육에 참여하셨나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한반도에서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교 위원 왜 바뀌었나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그 당시 그 부분의 집필자는 제가 아니고 제가……

○한선교 위원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십

시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저는 그 당시에 원래 문서에 있듯이……

○한선교 위원 본인의 생각을 단문으로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전체 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북한은 어떤 집단입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북한이오?

○한선교 위원 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북한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선교 위원 합법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래서 방한이 아니라 방남? 남측, 북측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고 원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분이 집필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검정에서 통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선교 위원 나중에는 저술자 전체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정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요. 거기에 함께 참여하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거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한선교 위원 내년은, 올해인가요? 건국 몇 주년인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올해요?

○한선교 위원 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건국 99주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내년은 100주년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한선교 위원 그러면 1919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건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100주년 그리고 올해가 99주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내년이 100주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한선교 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군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100주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올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마음이 놓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감사합니다.

○한선교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큰 목소리로 하세요, 나오기 불편하신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요.

이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광화문을 찾아온 우리 땅 독도'가 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한선교 위원 제가 이번, 일본도 또 도발을 하고 영국 언론도 그러고 독도 땅에 대한 잘못된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독도에 대한 정부 홍보 예산은 과연 어디가 주무부처인가 했더니 외교부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더군요.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일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물론 한일 간에 외교적인 갈등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때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재단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게 없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선교 위원 안 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한선교 위원 앉으세요.

도종환 장관님, 보니까 홍보에 관한 것을 문체부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에 그리고 부처 자체적

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한선교 위원 내가 착각을 했네요. 저쪽을 안 보려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교육부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로 하고요.

○한선교 위원 교육부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한선교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장관님, 경기교육청·강원교육청 여기 지난 국감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조사를 우리가 부탁했으나 하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차관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것부터 보내 주십시오, 오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언론이나 보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전평이 있겠습니다마는 개최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최 지역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오랫동안 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지켜 본 사람으로서 소회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감 없이 평가한다고 한다면 뉴 호라이즌(New Horizons)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전 세계로 알리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 데 자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화 또 평화·환경·경제·ICT 올림픽의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마는 환경 문제하고 평화 올림픽에는 나름대로의 혼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환경 올림픽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화 올림픽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준비되지 않은, 좀 더 세련되게 접근되지 않은, 아이스하키 같은 것 단일팀 문제도 상당 부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옥에 티로 본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 올림픽은 굉장히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함께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민과 개최 지역의 시·군민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종환 장관님과 노태강 차관 또 이기흥 체육회장,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잉투자, 분산 개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일거에 나름대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성공 올림픽을 끌어내는 데 노력을 해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평창의 심재국 군수, 전정환 정선군수 그리고 최명희 강릉시장과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셨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올림픽을 즐기면서 유연성 있게 나름대로 고독한 훈련과 함께 대한민국의 긍지를 높였던 선수들도 이 올림픽에 커다란 몫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공 올림픽은 치러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3월 9일서부터 하는 패럴림픽도 비록 한 600여 명이 안 되는 선수가 참가하지만 그래도 지구촌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의 축제가 되지 않게 장관께서 끝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패럴림픽이 끝나게 되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특히 무형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긍지, 자긍심 이것을 대한민국의 산업과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우리가 더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형의 자산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내걸 수 있는 경기장들이 많은데 다 역사적인 경기장이라고 봅니다. 컬링 경기장도 물론 존치합니다마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이스하키장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트장 또 중봉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스키 선수들이 '이것은 세계적인 슬로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보급 문제도, 세계적인 스키장을 어떻게 할 것이

냐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분석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올림픽 시설들과 경기장들이 계속해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공적개발원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ODA.

○염동열 위원 예, ODA. 보니까 그게 한 3조 482억 이렇게 1년의 예산이 잡혔는데요, 18년도에. 체육부가 한 58억 4500 정도 쓰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59억……

○염동열 위원 59억에 가깝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속한 것은 올림픽에 있는 이 시설을 아시아의 동계올림픽의 허브로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유치 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스하키하고 컬링하고 두 가지 정도만 드림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지원하고 같이 합동훈련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ODA의 기금을 통해서 아시아의 새로운 동계스포츠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국가 간에 외교를 증대화시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좀 더 아시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허브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드림 프로그램 외에 엘리트체육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아시아에 태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눈이 없는 나라, 기후와 여건이 되지 않는 나라를 ODA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한다면 이 시설의 사후 활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외교적 여러 가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번 올림픽을 치르면서 IOC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IOC도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른 것뿐만 아니라 드림 프로그램을 우리나라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나라의 선수들이 이번에 올림픽에 참여하게 한 것 이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경기장을 해체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사후 활용 문제는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부가 다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스케이트장이라든가 하키 센터 같은 것들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염동열 위원 동계 국가대표 훈련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을 할 때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그리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와 운영주체가 함께 재정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대개 이야기되기로는 3 대 3 대 4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비율 조정 문제가 조금 남아 있을 뿐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염동열 위원 제가 이것과 관계없이 아시아의 엘리트체육, 아시아 동계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문체부에서 만드셔서 만약에 지원하고 계획을 한다면 틀림없이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2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장정숙 위원님, 자료제출 관련……

○장정숙 위원 예, 자료제출 때문에요.

○위원장 유성엽 예.

○장정숙 위원 아까 오전에 국립오페라단 단장 임명 절차에 따른 자료 보고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태 안 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자료 준비해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준비됐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지금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의원실에서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자, 그러면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자료를 드리고.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도종환 장관님 이번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었습니다. 감동의 올림픽이었습니다. 흑자를 낸 올림픽이었고 국위선양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자원봉사 올림픽이었습니다. 1만 4202명의 숨은 주역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 낸 올림픽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올림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평양올림픽을 운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이런 국제적 성과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보여 주는 모습은 정쟁이 아니라 화합과 그리고 단합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오석근 예.

○김한정 위원 잠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종합촬영소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오석근 지금 계약은 끝난 상황이고 나머지 공사 준비의 실무적인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부지 매입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오석근 임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 임대가 5년 계약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영구 임대로 갑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오석근 부지 매입에 있어 가지고는 원래 2009년도에 종합촬영소 건립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계획했었으나 2016년도까지 남양주촬영소가 매각되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남양주종합촬영소가 매각된 이후에 부산촬영소 부지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그것이 조성가가 205억이었고 감정가격이 약 113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부산촬영소 유치를 희망하는 부산시 기장군의 제안으로써 무상임대 형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무상임대를 5년씩 갱신하겠다, 그런데 영구임대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시협약서를 보니까요 나중에 사업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부지 매입도 없이 임대해 가지고 660억을 시설에 투자하고 앞으로 추가 투자가 일어나야 될 건데 이게 과연 올바른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오석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산 촬영소 건립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5년간 무상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화인들 역시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기장군하고 문제 되는 부분을 보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걸 장관님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지방 이전 좋고, 분권 좋고 또 문화도 수도권 집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산에, 영화인들의 그런 요구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 방식 자체에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지금 150여 개의 정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렇게 부지 매입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종합촬영소가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부산에 1000억대의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촬영소 매각 배경도 의혹이 있습니다.

유찰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주택사업자인 부영주택한테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과정에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6년 2월 안종범 수석이 K-스포츠재단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그 자리에 이중근 부영 회장도 있었습니다. '70억 원짜리 스포츠 시설을 좀 지원해라', 이중근 회장은 '자기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무마해 주면 지원하겠다', 이것 회의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그런 조건을 단다면 관둬라' 그래 가지고 70억 요구한 거는 무산됐는데 그 뒤로 국세청 조사가 들어가고 검찰 고발 직전까지 가니까 떠넘기기 식으로 부영이 종합촬영소 매입에 응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자, 그래도 남양주종합촬영소 부지는 수도권에 있는 중요한 국가 문화시설이었는데 또 영화인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지원 시설이었는데 올해 부산은 되지도 않고 남양주종합촬영소는 지금 반신불수 상태로 돼 있고, 영화인들은 어디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부영이 매입한 이 종합촬영소 부지는, 거기에다 아파트 지을 겁니까? 빌라 지을 겁니까? 여기에 못 짓습니다.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 과정도 의혹이 있고.

또 지금 이전 과정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화인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소상하게 해 주신 대로 그동안 진행 과정을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방금 또 안종범 수석, 최순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고 계시니까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김상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전희경 위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업무지시 1호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지시 1호 사항이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비정규직 문제……

○전희경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현장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업무지시 1호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인데, 국정 교과서 폐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전희경 위원 그렇게 국정 교과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검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집필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집필기준안의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필기준안 내용에 자유 빼고, 남침 빼고, 새마을운동 빼고, 인천상륙작전 빼고, 천안함 피격 빼고, 정경유착은 넣고 이런 집필기준안으로 검정 교과서 만들려고 업무지시 1호로 절차도, 사회적 논의도 없이 국정 교과서 없애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전희경 위원 과도한 오해라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진을 꾸려서 거기 연구진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희경 위원 똑같이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에서 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전희경 위원 논의 과정이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전희경 위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2017년 7월 27일의 교육부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스케줄로,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검정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교육부장관님이 적어서 보내신 거예요, 교육부에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과 교육과정 확정고시를 2018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월이지요? 2월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공청회 3회를 할 때에, 교육과정평가원의 집필기준안은 연구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타임 스케줄상으로 확정안에 가깝게 되고, 3회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집필기준안으로 확정되는 순서지요. 그거를 무슨 연구원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지요.

지금 교육부가 1월에 확정하도록 돼 있었으면 그 안은 사실상 정부가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가지고 있는 확정안에 가까운, 완성된 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론에 공개돼서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시간계획상으로 확정안인 것을 교육과정평가원의 안이 아니다, 연구원 차원의 의견 개진이다? 아니,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의 안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가 공청회 한 적은 없고요. 그 일정은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전희경 위원 공청회 주체가 어디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공청회 주체는 아마 평가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요. 평가원은 정부하고 동떨어진 기관이냐는 겁니다. 거기가 무슨 민간 NGO냐는 겁니다. 교육부하고 평가원을 그렇게 자꾸 분리시켜서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평가원 산하기관에, 소속기관에 그걸 의뢰하면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것이지요.

○전희경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교육과정평가원의 일개 연구원 의견으로 돌리시니까.

교육부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집필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역사학계, 시도교육감협의회 이런 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집필기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어떤 부분을 역사 교과서에 담았으면 좋겠느냐라는 내용들을 간추린 내용들이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해라, 북한 관련 서술에서 천안함 피격을 삭제해라, 북한 인권을 삭제해라,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것마다 삭제하고 들어냈습니다.

정부에서 연구용역 맺고 이 집필기준안 마련을 위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교육부가 협약 맺은 사실 있잖아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것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그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 맺은 단체와 관련 기관들에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달라, 이런 내용을 빼 달라라고 한 내용대로 지금 교육과정평가원 안이 돼 있다니까요. 자유 빼고 천안함 빼고 북한 인권 들어내고 새마을운동 들어내고 인천상륙작전을 역사교과서에서 지우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런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지침을 주지 않으시다니요.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달라고 했고 그것이 교육과정평가원에 내려와서 시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교육부가 비겁하게 발을 빼는 것이지요.

그것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제가 질의를 하니 '본인은 집필기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안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한국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총리의 의견을 부정하셨잖아요. 뭐요? 뭐라고 부정하셨습니까? '절차적인 부분을 총리가 문제 삼았지 내용을 부동의한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인터뷰 내용?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제가 속기록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가 한 내용.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이 집필기준안?'

총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총리는 책임총리라고 그랬고 총리 밑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인데 의견이 다르시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께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로서는 구체적인 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장관님이 교과서 집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가 이런 경천동지할 내용의 집필기준안 시안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업무협약을 맺고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 모든 단체와 모든 기관과 모든 인적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에서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물이 되어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집필기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편향되고 문제 많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국정교과서 그렇게 반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교육부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발 솔직해 지십시오. 교과서 똑바로 못 만들면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시려고 그럽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현황을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국가교육회의 참석 차 오후 5시까지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께서는 IOC 위원 출국 인사차 이석을 하셨고 현재 전충렬 사무총장이 대신 배석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 장관님 말고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질문을 적절하게 할애를 해서 새로 취임하신 분들이 국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위원장 유성엽 잠깐 마이크 앞에 와 보시지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모 언론하고 독도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독도체험관을 지금 현재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아니요, 독도체험관은 저희 재단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의 지하에 지금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지하 1층에 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지하 1층에 약 한 70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경우 보면 금년도 1월 달에 도쿄시내 한복판에다가 독도전시관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나라의 독도체험관을 어떻게 다뤄 나갈 계획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지금 독도체험관의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의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면 어디 좋은 서울시내 한 중간에 독도전시실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작년에 8억 4000만 원 설계비 예산이 서지를 못했는데 아마 그것은 동북아역사재단 신축건물 설계비였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런데 그 당시 내용을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신축하려는 건물 내에다가 독도자연관, 역사관, 자료관 등등 독도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저희들이 재단에 별도의 독자 건물이 서게 되면 저희 재단의 임무에 맞게 독도 체험하는 독도전시실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전시실, 일본의 역사왜곡전시실 이렇게 3개의 전시실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서 신축은 추진하시더라도 독도체험관은 꼭 동북아역사재단 건물 내에다 둘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선택해서 일본처럼 독도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년 초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 문제를 잘 챙겨 나가시도록……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신축사옥 중의 일부에다 두는 방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로, 용산 같은 데도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적지를 잘 찾아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교육부장관님이나 또 위원장님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광화문에 45일간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독도 전시를 내일 개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시고 부임 인사차 제 방에 오셨을 때, 교문위원들 함께 독도 방문하는 것 검토하고 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추진하겠습니다. 날씨 좋아지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3월 말 4월 초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함께 독도 방문을 지금 현재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미리부터 신청을 해 주시면 엄선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가능하면 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제가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두 분 장관께만 하지 마시고, 회의석상에 잘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배석하신 공공기관장들께 질의를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자사고·특목고 폐지의 주된 논리가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리고 설립 목적대로……

○李恩宰 위원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설립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李恩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것도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강남 지역의 집값 폭등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집값 폭등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왜 뭐 때문에 강남의 집값 폭등이 됐는지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부동산 시세변동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볼 문제이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아니, 집값이 그렇게 오른 원인 제공을 교육부장관이 하셨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恩宰 위원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은 뭐든지 부정과 거짓말 이걸로 싸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장관님만 아니라고 그러세요. 명색이 경영학박사고 전직 교수고 지금 현직 사회부총리입니다. 이와 같은 특정 정책이 다른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제대로 검토도, 분석도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 앞에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허위 답변을 하시는 건지 3개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국민들이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강남 집값을 들썩이게 한다고 하는데 왜 사회부총리만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검토를 안 했든지 분석을 안 했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장관 자질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도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리고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담당 부서인 국토부차관이 바로 강남 집값 문제는 자사고·외고하고는 관계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李恩宰 위원 시간이 가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좀 빼 주세요,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하니까. 이것은 시간 빼 주세요.

○위원장 유성엽 이은재 위원님, 빼기는 빼겠는데 지적하시더라도 너무 과한 표현들은 자제를 하시면서……

○李恩宰 위원 과한 게 아니라 지금 장관은 계속 여기 와서 팩트를 팩트대로 답변을 안 하세요.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은재 위원께서 표현이라든지 내용을 좀 순화시켜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그러면 1분 빼 주세요.

또 일각에서는 장관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강남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장관께서 지금 래미안팰리스 38평 소유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렇지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런데 지난 8·2 대책 발표 당시에 살지 않는 집은 팔아 달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자기가 시범으로 남편 명의의 주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께서도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사고·특목고 없애고 나니까 지금 8학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장관님 자꾸만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매일 저희 지역의 부동산 다니고 있어요.

집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극단적인 오해이시고요.

○李恩宰 위원 뭐가 오해예요. 자꾸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리고 참고로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李恩宰 위원 뭐가 오해냐고요, 뭐가 오해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李恩宰 위원 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부동산에 팔아 달라고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李恩宰 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매물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여기 와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시니 이야기가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왜 제 개인 문제를 거짓말합니까?

○李恩宰 위원 아니, 매물이 없어서…… 부동산을 제가 어제도 갔었어요.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 갔었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 주십시오, 위원님.

(웃음소리)

○李恩宰 위원 주세요. 제가 부동산에 해서 당장 팔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신 거지요? 여기서 거짓말하시는 것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습니다. 내놓았습니다.

○李恩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 한 언론은 '강남 교육부는 현실을 모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왜 교육부 사람들은 다 강남으로 갈까'라고 물으면서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 주지도 않습니다. 자료 주지도 않는데, 본 의원실에서 파악을 한 바로는 현재 1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18명 중의 5명이 세종시로 이사를 했고 서울 거주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왜 중등교육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까? 지금 8학군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집을 팔아 달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동산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디서 해먹던 버릇입니까, 도대체! 그것 어디서 해먹던 버릇이에요!

○위원장 유성엽 이은재 위원님, 질의……

○李恩宰 위원 아니, 아까 장관이 어떻게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을 팔아 달라고 그랬지요? 여기가 농담 따먹는 장소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엽 아니, 제가 들어 보니까 '왜 안 파느냐?' 그러니까 매물로 내놓으셨다라고 아까……

○李恩宰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요 저희가 매물이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매물로 아까 내놓으셨다라고 그러면……

○李恩宰 위원 정책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관 태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유성엽 아니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은요.

○李恩宰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편향적인 사회를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니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은재 위원님도 질의를 좀 순화시켜서 차분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李恩宰 위원 아니, 굉장히 순화해서 오늘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지금 언론에서도 강남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 이야기라는 게……

○李恩宰 위원 지금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여기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님 질의와 또 장관 답변을 보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李恩宰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제가 질의 시간에……

○위원장 유성엽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위원님 질의가 좀 과했어요.

○李恩宰 위원 뭐가 과해요?

○위원장 유성엽 그러다 보니까 장관으로서도 좀 적절하지 않게 뭐, 집 팔아 달라 이렇게 답변이 나오신 것인데,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李恩宰 위원 아니, '사회부총리로서,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미 장관은 시범으로 자기 집도 아니고 남편 집까지 매각을 하는데, 먼저 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님, 그게 잘못……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매물로 내놓았다라고 답변하시던데……

○李恩宰 위원 사회만 봐 주세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사회를 잘 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李恩宰 위원 예, 사회만 봐 주세요.

○위원장 유성엽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李恩宰 위원 아니,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겐세이 놓으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유성엽 자, 그러면 시간을 2분 더 드릴 테니까 좀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듣기에 좀 거북스러워도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실 지금 8학군의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 자사고·특목고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8학군으로 전부 다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교육 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올림픽을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많은 여론이, 북한에 끌려다니느라고 주최국이 국기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일방적인 합동공연 취소,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만 그동안에 대변을 했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의 원인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기가 막힌 것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폐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것 통일부장관한테 보고를 받으셨나요? 어떻게,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제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세 가지를 같이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恩宰 위원 아니요, 앞의 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것만 먼저 답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것을 제가 누구한테 보고를 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통일부에서 주관해서 남북관계는 협상을 하거나 또 회담을 하거나 하는 사안이니까요 제가 관여를 하거나 제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李恩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통보는 받으신 것이지요? 어떻든 간에 뭔가는 연락을 받으셨든지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것은 정부 합동지원반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지원반을 통해서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말도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는 폐막식에 참석한다고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제가 결정할 사안이라든가 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李恩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자, 이따 보충질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앞의 두 가지는 답변을 드릴까요?

○李恩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선 김여정으로 시작해서 김영철로 끝난 올림픽, 이것 때문에 평양올림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관은 어떻든 천안함 유가족과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만행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논의를 주도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가 관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은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恩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자, 마무리하시고요,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李恩宰 위원 그리고 답변 두 가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를 포기한 게 아니냐라고, 태극기를 포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극기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개막식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8명의 선수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했고요, 그 국기가 게양되는 동안 40명의 어린이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 거기에 있는 3만 5000 관중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같이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면서 태극기 입장과 함께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공연 중에도 장구춤을 추면서 태극을 형상화한 그런 작품이 무대에 펼쳐지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딸 때마다 애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게양되는 것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것 때문에 혹시 태극기를 포기한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반도기는 또한 북한을 참여하게 하면서 이 올림픽이 안전한 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되게 하기 위해서 IOC의 권유와 함께 IOC 집행위원, 남북이 함께 결정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일방적인 합동공연 취소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금강산에서 하고자 했던 합동문화제는 금강산 지역이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방치되다 보니까 건물들

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유를 가지고 가서 그 공연장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전기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공연을 할 수 없었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李恩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따 보충질의하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김한정 위원님하고 이종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시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유성엽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이종배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하시기 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 이은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답변 도중에 저한테 아주 불경스럽고 적절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당구장 다닐 때 들어 봤던 겐세이라는 말을 들어 봤는데, 우리가 과거 청년 시절의 기억에 당구 칠 때 뭘 방해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일본어라는 말이에요, 제 기억에는.

위원장한테 겐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나 삼일절이 내일모레 남아 있습니다. 그 삼일절, 독립기념일을 얼마 앞두고 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겐세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원장한테 항의한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또 우리 상임위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품격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유성엽 아니,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나서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가급적이면 상대방들을 혹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짧게, 길지 않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우리 상임위가 교육과 문화를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회의 발언 과정에서 정말 교육적으로 창피하고 문화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언사들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의 정책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여론에서도 나오는 일에 대해서 만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이 상임위원회에서 좀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속기록을 잘 읽어 보시고, 그것은 기록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이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신 것은 지역구에 가면 요즘 부동산가격 인상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과 관련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또 부동산학 전공이시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살펴볼 때 이런 강남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은 교육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교육부장관께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교육부장관께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러니까 이은재 위원님이 요즘 매물이 없는데 매물로 내놨는데 왜 안 팔렸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장관님이 답변하신 것이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팔아 주십시오'……

아니, 이은재 위원님이 파는 사람 아니시잖아요? 부동산중개업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장관님께 질의한 것을, 그 질의 내용을 좀 희화화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이 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장관님이 앞으로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마지막에……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 정책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에 대해서 강남 8학군에 이렇게 학생들이 몰려서 집값 영향이 있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남 8학군에 이렇게 학생들이 몰리지 않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답변 태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우리 장관께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우리 이은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李恩宰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가급적이면……

○李恩宰 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무슨 나쁜 말이 나갔다든지 나쁜 워딩이 나갔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강남에 지역구를 둔 저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정책이 이러냐?'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 중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만 방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혹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조금 과도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장관님이 저한테 '물건을 내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 팔아 달라', 제가 여기 부동산업자 아닙니다. 이런 막말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당하고 얘기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성엽 이은재 위원님이 저한테 사과하신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진행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각별하게 신경 쓰시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아까 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로서는 아까 마지막에 이은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가 부동산이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번 강남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사고·외고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났는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부동산을 잘 아시고 하시니까 그런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개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는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그쪽에 살기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남 부동산값이 뛰었는데 내놓았는데 안 팔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 부동산도 많이 아시고 하셔서 저로서는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렇게 말씀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은재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李恩宰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나가면 사실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유성엽 그러니까 다음에 이따 보충질의할 때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것으로 매듭짓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먼저 문체부장관님께, 올림픽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실제로 우리가 유엔에서의 휴전 결의 그리고 북한의 참여가 있기 전에는 물론 와전된 얘기이기도 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너무 위험해서 선수단을 파견하기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선수 보내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던 것이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를 결정하고 또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런 우려들이 다 불식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참여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우려와 걱정 없이 마음대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조금 전에 자사고·외고 문제가 나와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승래 위원 작년에 출생자 수가 40만 명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는 한 110만 명 가까이 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때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저희 때는 고등학교를 거의 다 갔어요. 저희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 진학한 사람들이 거의 90만 명,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던 시절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의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40만 명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연 과거와 같은 100만 명 시절에 학생들을 뭔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똑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벌써 과고·외고 등등 해서 102곳쯤 되는데, 그게 전체 고등학교의 한 4%쯤 돼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100만 명의 4%는 4만 명입니다. 40만 명의 4%는 1만 6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만 6000명의 인재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지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저는 자사고나 특목고와 관련된 이것이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런 취지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불가피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수·진보의 이념적 갈등을 좀 줄이면서도, 그렇게 해야…… 우리 40만 명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뛰어난 인재로 키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정책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이 구조에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설립할 당시에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많을 때는 특성화된 고등학교, 외고도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봐야 되겠지요. 특성화된 학교들로, 학교로 특성화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이들별로 특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개별적인 특성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한테 좋은 사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컬링팀이 제가 보도를 보건대 2006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아이들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이 컬링팀이 보여 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경북 의성이 시골 아닙니까? 엄청난 시골이지요. 아마 240여 개 지자체 중에서도 인구도 상당히 적고 한 정말 시골인데 그 시골에서 그 아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컬링팀을 했고 이 아이들이 은메달을 딴 쾌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의성 컬링팀의 사례를 전국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작년 5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것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승래 위원 올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 5000여 명에게 23억 9000만 원을 투여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될 확률이 많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구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승래 위원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실제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교육기관이 여의치가 않아서 장애인단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교육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챙겨 봐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통계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평생학습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 성인들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조승래 위원 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승래 위원 꽤 되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0.02%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작년 5월 달에 그 법이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승래 위원 장관님께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문체부장관님께 조금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께서 건강상 문제로 또 그런 신변상의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 10명 중에 9명이 남성이고 1명이 여성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조승래 위원 특히나 문화예술계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봉건적 구조와 질서가 문화예술계에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실제로는 남성 문화예술가들이 여성 문화예술가들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에 처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실제로 문화예술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최소한 30% 이상의 여성 참여를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신장이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한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촉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임기가 다 하고 할 때 좀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임기가 다 하고 난 뒤에가 아니고요. 지금 아직 안 뽑은 장르들이 있고요.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용 같은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음악 그리고 정책 부분에 한 분 더 해서 세 분을 여성으로 곧 모실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도종환 장관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림픽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고맙습니다.

○이철규 위원 문체부가 1973년도부터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광진흥기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철규 위원 1년에 기금액 징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갑자기 질문하시

니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철규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요? 한 1조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철규 위원 1조 넘는 돈이 기금의 형태로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난 연말까지 징수된 기금액 규모를 보니까 약 한 10조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디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특이하게도 강원랜드라고 하는 1개 기업이 납부한 기금액 규모가 1조 2600억이나 되고 전체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금을 많이 부담하는 기업이지요.

그런데 기금의 집행운용 실태를 보니까 말이지요. 동일 기간에 강원랜드 1개 기업이 납부한 기금액 규모가 12.5%,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 징수한 금액 중에 지역, 그러니까 강원랜드 설립 목적인 폐광지역의 회생 또는 발전을 위해서 투자된 기금액 규모를 보니까 약 한 4.6% 정도 되는 58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말이지요, 관광호텔 지을 때도 기금 지원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상당히 저리로 융자해 주고요. 그다음 또 영화라든가 연극, 공연에도 이 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수익성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기금으로 보조해 주지 않을 경우에 문화예술의 창달 또는 진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분야에 이 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십년간 기금의 운용 실태를 보면 대도시에 주로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방향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장관님,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는 관광호텔 또는 그 외에 문화공간도 대개 건설을 하고 난 다음 보면 운영하는 데 이제는 수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문화적 인프라가 열악한 시골, 농촌이라든가 또는 소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철규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문화부에서 받아 보니까 말이지요, 특히나 상당히 많은 기금을 납부하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이 폐광지역의 존립과 경제 회생입니다.

그런데 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폐광지역을 지원하는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요. 개발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율이 50%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이게 좀 형이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없는 사람에게 '너 얼마 준비하면 얼마 보태 줄게'라고 했을 때, 당장 끼니도 못 때울 사람에게 '너 돈 1억을 모으면 내가 돈 1억을 보태서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 봐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의 지자체들은 이렇게 매칭사업 할 때 문화사업에 50%를 부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요. 그래서 문화부가 분담률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가지고, 국고보조율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낮춰도 될 것이고 또 지방의 소도시는 70%, 80%까지 올려도 된다고, 탄력적으로 조정해도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 제도를 좀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정 당국,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지금……

○이철규 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문화부의 뜻을, 의견을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예기금의 매칭사업, 기금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관광상품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 재정규모를 고려해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데 동의하시고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리고 이 의견, 그러니까 분담률의 조정이 차별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이런 곳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

○이철규 위원 필요합니다.

지금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외받는 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부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 그 기초단체가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같은 경우 또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도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사람이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도시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 단위에 가 보면 자기 분담,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분담해야 될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 일자리에 오고 싶은 어른들도 다 수용을 못 한다 이게 바로 지방이고, 또 그다음에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이고 차별입니다, 사실은요.

문화상품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관광상품 개발사업도 문화관광부가 이 기금사업의 분담비율을 좀 조정해서 기재부하고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을 본 의원실과 좀 협의하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토론·질문식 교육의 전환에 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현장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후에 점검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현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혁신교육하에서 혁신학교 모델링을 하는 지역에서는 토의·토론식, 프로젝트식 또는 모둠수업식 그리고 또 하브루타식 이런 것들을 거기에 특성에 맞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그 실태가 어떻더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고 교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실제로 몇 가지 사례도 직접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 교사들이 그런 수업을 하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사들도 공부를 따로 하고 연수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시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은 훨씬 더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길부 위원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에다가, 관심을 갖고 죽 한번 실태를…… 가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벌써 4~5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디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잘못됐다, 암기, 객관식이 말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고 그리고 연수도 많이 했고 이렇던데 그 선도교육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교육부에서 한 것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1만 5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0만 명이 안 됩니까, 교사 총규모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강길부 위원 그러면 40만 명의 1만 5000명 교육해 가지고 이거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지난해에 한 27만 명 정도를 연수시켰는데요, 다양한 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강길부 위원 27만 명이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전체 연수 인원이 한 2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업 방식의 혁신, 수업의 혁신만이 아니라 여러 평가 혁신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담당 과장이 작년도에 저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도 3월 달부터 이것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간에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지금 수업지침이 학과목들도 어느 챕터에는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안 하고는 못 배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저는 상당히 인정했는데 이번에 인사 되고 나서 담당관이 왔는데 보니까 또 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 3월 달부터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도록 하게 하는? 이것을 처벌이라기보다 교사는 교육이잖아요. 학생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업 혁신과 평가 혁신을 모든 학교에서 일시에 한다기보다 그동안에 모델링해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길부 위원 교사들도 보니까 수업나눔이라든가 수업동아리, 수업연구, 수업공동체, 연구회, 각종 모임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들의 열의에 대해서 교육부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관심도 없고.

교육을 지원해 주려면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강길부 위원 그런 데 대한 지원도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고3이 되면……

현재 수능이 객관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강길부 위원 이러면 이제까지 초중고, 고2학년까지 다 토론식으로 하다가 학부형들이 또 학생 자신이 우선 객관식 시험을 쳐야 되니까 도로 환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의 자기 교육 방식과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교육부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도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토의·토론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들이 즐겁게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대입을 코앞에 두고 대입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오는데 그것은 결국 제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입시를 바꾸어 나가고……

○강길부 위원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총리한테까지 요구하는 것을 부총리님이 옆에서 안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봤습니다.

○강길부 위원 저는 절실하게 요구를 하는데 부총리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 태만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좀 더 열의를 갖고 현장에 가 보십시오.

차관한테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 봤어요? 가 보셨느냐고,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열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추진계획·추진방향에 제1순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1순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길부 위원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따르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교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대학 교사하고, 교육대학 학생하고 사범대학을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교원양성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 자체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길부 위원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바꿔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적인 일차적인 요구는 했고요. 제안하고 요구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교원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층연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부총리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제1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태

조사와 점검을 전부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강길부 위원 언제까지 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빠른 시간 내에요? 그러면 한 달 내로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감사합니다.

○강길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누리과정을 국고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돼서 참 잘하셨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분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국·공립유치원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공립유치원도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정규교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조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 문제가 현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민기 위원 이것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가 됐고 또 아동수당도 올해부터 지급되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교사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것이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구조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꽤 많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일단은 고용노동부 쪽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비교사들에게도 해당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누리과정을 국고로 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첫 해에 22만 원이지만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올려서 작년에 30만 원까지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단가가 단 한 차례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국고로 완전히 됐는데 지금 보육료 지원단가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년째 보육료 지원단가는 하나도 인상되지 않고 있고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증가액은 오로지 원장이 책임지는 구조로 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22만 원으로 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단가를 점차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가시켜야 되고 우선 3만 원 정도 좀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일인당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관계부처하고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정 형편상 바로 그것을 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누리과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

재하는데 기존의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교사의 월급 인상분을 원장의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원장들께서 돈을 빌려다가 교사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께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 누리과정 지원금이 6년째 동결되고 있으니 이것을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이 시그널을 이분들한테 주셔야 된다, 그래야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충해서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히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다음, 문체부장관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가 148명인데 그중에 20명이 귀화선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민기 위원 저도 1분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김민기 위원 귀화선수가 있으면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귀화선수의 처우와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써먹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대로 방치' 혹은 '처우에 대해서 무신경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께서 우리 귀화선수를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처우해 주실 것인지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도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를 비롯해서 바이애슬론, 루지…… 루지 선수도 여성 선수가 있고요. 당장 아이스하키의 경우에는 우선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팀 정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 논의하고 있고요, 일정 정도 진척된 것도 있고요.

또 단체종목이 아닌 개별종목에 있어서도 선수들을 올림픽 때 쓰고 그냥 버리는 형태가 아닌 이 선수들을 통해서 경기력이 향상되고 팀워크가 유지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적들을 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지원하는 방안 같은 것 등을 논의·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 연극 연출가인 이윤택 씨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곽상도 위원 장관이 국회의원 하셨던 2016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이윤택 씨가 문재인 지지연설로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곽상도 위원 이윤택이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상세히 따지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때 여러 가지 열변을 토하셨는데 다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곽상도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이윤택이 문체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총 4억 4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극단에 준 것까지를 포함해서입니다.

○곽상도 위원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공연을 성사시키고 공연에 나설 여배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결국 성추행으로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곽상도 위원 이런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결국은 예산 지원하고 다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예산 지원하고도 관련 있으리라고 봅니다.

○곽상도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개인에 대한 신상……

○곽상도 위원 아니,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실 거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성희롱·성추행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지원에서 배제하고 또 공적인 자리를 맡을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까지 조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

○곽상도 위원 아니,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문체부가 지금까지, 오늘 대통령 얘기 나오기 전까지 이 사이에 조치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했고요, 여성예술인연합과 함께 예술인들의 성희롱, 성추행 관련된 실태조사를 1월까지 마친 바 있고요. 이 내용을 접하고서 저희들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1월 달에 이미 이런 내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곽상도 위원 알고 나서 조치하신 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 부 내에 외부 여성들로 구성된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만나서 이 문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문 같은 것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폭력, 성추행 관련되는 분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기구가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고 그리고 분야별로도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곽상도 위원 지금까지 상담기구에서 상담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영화 쪽에 있었고요, 벌금 500만 원형을 받은 경우가……

○곽상도 위원 상담받은 분이 몇 분 있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영화 쪽에 있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몇 사람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제보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한 분이 벌금 500만 원형을 받게 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영화 말고 다른, 연극이라든가 또는 출판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상담센터를 콘텐츠진흥원 내에도 만들고 그리고 또……

○곽상도 위원 장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열하시는 게 추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회의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실상을 선제적으로 알릴 생각을 해야지요. '이런 것 했습니다. 저런 것 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제 피부에는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부처들이 뭘 하고 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난 월요일 날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기껏 해서 지난 월요일에 이르러서 했단 말이네요.

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고은 씨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곽상도 위원 재작년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했기 때문에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동료 시인과 함께 촛불집회 지지하는 시집 '천만 촛불 바다'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고은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미안하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문인이시니까 이분 잘 아셨을 것 아니에요?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곽상도 위원 고은 씨의 이런 성추문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없었기 때문에요.

○곽상도 위원 안도현 시인이라는 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곽상도 위원 이분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고은 선생님, 문재인 후보하고 소주 한잔 얼큰하게 하시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같이 소주 한잔 해서 뭘 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고은 시인이 그때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인은 성추행을 하는 분이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 똥갈보 같은데 이 사람 문 대통령은 숫처녀 그대로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한 손으로 본인이 한 행동은 숨기고 다른 손으로는 이렇게 고운 말씀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인으로서 할 말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인이든 연극인이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추행을 하거나 언어에 의한 희롱을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곽상도 위원 오태석 연출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작년 11월 달에 문체부로부터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1억 배정받기로 하고 나서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전폭적인 지원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고마운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 실상을 듣고서 이렇게 보면서 '아, 여단원 성추행할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저는 이런 뉘앙스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성추행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 부서가 있겠습니까?

○곽상도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게 이런 실상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배제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앞으로는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곽상도 위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젠더폭력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먼저 근절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최초가 누구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공공 부문부터 먼저 정리, 솔선수범을 해야 부처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솔선수범하도록 대통령께 얘기도 못 하면서 어떻게 성폭력 근절대책을 제대로 내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건의하실 생각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는 우선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노력하고요. 여성부와 또 이 부분을 연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부 그리고 관계부처 등과 성희롱, 성추행……

○곽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건의를 하세요.

교육부장관님, 고은 시 교과서에서 삭제 안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본색원하고 폭력 정리하라고 오늘 다시 말씀하셨는데 종전 입장을 바꿔서 고은 씨 시도 교과서에서 삭제하실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고은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없고요, 중학교에 하나, 고등학교에 10개가 게재돼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사와 저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사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곽상도 위원 대통령 말씀 이후에 협의할 생각이 생기신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성남시 분당구을 김병욱입니다.

체육회 이기흥 회장님 안 계시고 전충렬 사무총장님 계신가요? 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동계올림픽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잘된 것은 계속 계승해 나가고 지적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독 빙상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그리고 선수들의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둘러싼 빙상연맹의 행정실수라든지 심석희 선수 코치 폭행 논란 그리고 이탈, 그리고 임원들이 선수촌 현장을 아무 예고 없이 방문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팀추월 대표팀의 이른바 왕따 논쟁 등등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들으셨고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일부 빙상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빙상연맹의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새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부분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약간의, 들리는 소리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조사를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욱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일부분의 얘기만 듣고 예단을 갖고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팩트가 뭔지를 철저히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올림픽 과정에서 불거진 빙상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예, 입체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12월 빙상연맹의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방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발인원이 선수 8명,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의 하단에 보면 '랭킹 1-3위 선수가 출전하며 출전선수 유고 시 랭킹 차순위 선수가 출전한다'…… 다시 말해서 '4명을 뽑지만 3위까지 출전하는 거고 만일 나머지 한 사람이 유고 시에 출전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다음 PT 자료 보실까요?

한 달 있다가 빙상연맹에서 공문이 나갑니다. 뭐냐 하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시간할애 요청하는 공문인데요, 갑자기 남자 선수가 5명으로 늘고 여자 선수도 5명으로 늡니다. 다시 말해서 총 8명을 공모했는데 그 과정에 추가공모 절차 없고 아무런 설명 없이 딱 2명이 늘어서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자료가 제출 안 돼 있다가 아침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답변이 '선수부상 등을 대비하여 단체전 예비선수 추가 파견하는 것 때문에 1명 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것 보면서 어느 종목이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 따라서 3명 출전하는 거니까 1명 정도 더, 만일의 유고 시를 대비해서 4명을 뽑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예.

○김병욱 위원 원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작년 12월에 공문 나갔을 때 3명 출전하고 유고 시 대비해서 2명을 추가로 뽑는 것이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고 갑자기 늘고, 그 는 이유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자료제출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자료제출했는데 그 답변이 영 엉뚱한 답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규정상 계주경기에는 5명까지 출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선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명만 뽑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그쪽 자체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고나 이런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없었는지는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우리 빙상계에서는 한체대와 비한체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비이락일지 모르겠는데요, 4명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선발된 한 학생이 이번에 한체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빙상계 내부에서는 한체대 입학을 약속하고 그 학생을 선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무런 공모절차 없이 추가로 남자 1명, 여자 1명을 선발한 것 아니냐라는 내부의 논쟁이 이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순수한 뜻이 있더라도 선수선발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절차적 타당성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선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1명으로 했다가 2명으로 늘렸을 때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빙상계 내부에서 떠도는 그러한 것의 이유로 아무런 절차 없이 이렇게 선수가 늘었다는 것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한체대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체육회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전충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조훈현 위원님 안 계시고 노웅래 위원님 안 계시고 김세연 위원님 차례신데 그 전에 아까 한선교 위원님,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경기교육청 조지아텍 연수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내 주셨네요. 보내 주셨는데 조사 결과 내용은 없고 여기 말씀은, 제가 이것은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과 또 간사를 통해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함께 말씀드린다', 또 이철규 위원님이 '감사원 감사 의뢰 건의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여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했거나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바는 없으나……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이러한 이철규 위원님이나 저의 발언의 그 어떤 정도가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체감사를……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질의처럼 돼 갖고 미안한데 금방 끝낼게요.

이걸 갖다가 자꾸 여기도 자체감사를 하도록 했다, 자체조사 등 사안 해결 요청을 교육청에 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안이 이걸로 될 거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교육부로부터의 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말을 듣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단체라든지 국민의 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괜히 그 국정감사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 가면서 확인감사 때도 또 말씀드리고 교육청 자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자체가 아니고 교육부로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시간 가니까 말씀하시지 말고 이렇듯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하셔 갖고 실무자들,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추가질의 전에 주세요. 만약에 아니면 그 다음으로 갈게요. 안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유성엽 간사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위원 질의 전에 자료제출 요구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문체부장관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최종보고서 내용을 1월 달에 보셨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金世淵 위원 혹시 그 최종보고서 내용이 국회 교문위원들이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

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金世淵 위원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술정책과에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요약보고서만 보내고 최종보고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최종보고서를 본 적이 없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고 이렇게 둘러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바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도 요약보고서를 보고받았습니다.

○金世淵 위원 최종보고서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곧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용역 결과는 이미 작년 연말에 제출이 되었고 추가적인 보완사항만, 지금 그 부분만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설문조사가 1월까지 끝났고요, 그 설문조사가 끝난 뒤에 정리하는 작업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요. 3월 달에는 이게 다 최종 정리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金世淵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라도, 중간 단계라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초안 단계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어디까지 가능한지 위원님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이번에 올림픽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9일에 있었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이 공동입장을 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빠져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있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1월 23일에 미디어데이 행사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있었던 남북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 IOC에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권고가 아니고요, IOC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金世淵 위원 결정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의에서 IOC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金世淵 위원 일단 그 설명을 참작을 하더라도 1991년도 지바 합의라는 것이 한반도기에 제주도를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등을 제외한 것이 지바 합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총 열한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1991년부터 2005년까지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2006년과 2007년도에는 독도가 들어갔던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金世淵 위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에 있었던 한반도기가 쓰였던 것이 2006년에 이태리의 토리노동계올림픽 그리고 2007년도에 중국의 장춘동계아시안게임, 이 두 번이었는데 독도가 계속 빠졌던 것 같으면 또 수긍을 하겠지만 평창올림픽 직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독도가 들어갔었다는 거지요. 이때도 올림픽위원회에서 다 관장을 했던, 토리노동계올림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IOC의 결정도 오락가락했고 왜 지금에 와서 넣었던 독도를 빼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IOC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욱일승천기 사용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당시에 IOC에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본 관중들에게 조차 욱일승천기 사용 금지를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아예 일본의 체조선수팀이 욱일승천기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된 유니폼을 입고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IOC가 표현의 자유로써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2011년도 아시안컵 4강 한일전에서 욱일승천기가 다시 나왔고요. 또 U20 여자월드컵 한일전, 브라질월드컵 등 많은 대회

에서 욱일승천기 등장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욱일승천기를 형상화한 헤어밴드를 착용한 것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가관인데요. 2017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수원삼성과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또다시 욱일승천기가 등장을 했는데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가와사키구단에 벌금을 물리고 제재를 하니까 가와사키구단이 바로 항소를 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자위대 깃발이나 자위함 깃발뿐만 아니라 풍어 기원, 출산, 명절 축하용으로도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입장을 밝혀서 가와사키구단을 옹호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교묘하게 계속해서 욱일승천기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 스포츠단체들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열린 평창올림픽에서 그 직전까지 쓰였던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도 쓰지 않고 또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빠트린 상태에서 이렇게 IOC 권고의 재검토 요청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독도가 빠졌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분명히 입장을 정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2006년 토리노 그리고 2007년 장춘, 이때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IOC의 승인 없이 선수단끼리 합의해서 넣은 경우인데요. 1991년 지바 합의부터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63년에 브런디지 IOC 위원장 시절에 한반도기를 들고 올림픽에 오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말한 곳이 IOC이고 브런디지 위원장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IOC는 계속해서 두 나라 국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IOC에서 가능하면 정치적 사안을 정치적 쟁점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IOC 입장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원래 IOC가 요구했던 그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라는 것을 IOC 측에서 강하게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 쪽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 과정을 저희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스하키 평가전을 올림픽 직전에 열 때, 그때는 말하자면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우리가 들기도 하고 또 그런 복장도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런 시기에 독도관 같은 것들을 동경 한복판에서 개관하고 하는 것들은 묵인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감정적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을 외면한 채 우리에게만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IOC가 끝까지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되지 않은 원래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바흐 위원장도 계속 강조하고 하면서 저희 의견이 관철되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이 관철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도 생각하고 또 속상하게도 생각하면서 어쨌든 주최국인 우리가 올림픽 전체를 주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입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92개국 전체가 참여한 올림픽 전체를 IOC와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더 강하게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위원 장관님 설명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없지는 않겠으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훗날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치러진 올림픽에 등장한 한반도기, 저는 한반도기에 대해서, 공동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이 부분은 일단 논의를 유보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들었던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다는 사실은 향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나중에 어떤 근거로 그것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사후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말씀을 똑같은 말씀 반복해 드리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런던올림픽 때 축구 3·4위전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난 뒤에 박종우 선수가 독도 관련

퍼포먼스를 한 뒤에 메달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IOC 헌장 50조에 정치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메달을 박탈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출전 정지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본래 정한 한반도기를 들어라라는 것이 IOC의 요구였다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주최국이라는 점,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국토 안에서 이루어진 올림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 세계인들을 불러 놓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최국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두 가지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이것이 그냥 아쉽게 생각한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놓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우리 간사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노웅래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께 먼저 여쭐게요.

논란을 빚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영어 교육 또 거기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내년 2월 달이면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한테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된 방과후선행학습도 일몰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일몰 종료하실 건가요? 이것 아직 결정 못 한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노웅래 위원 지금 이 농산어촌에 허용된 방과후선행학습 이것 일몰 종료하면 또 학생·학부모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릴 거로 보이는 거고요. 또 일몰 연장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되면 선행학습법 금지한 당초 취지가 어긋나게 되는 거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게 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공교육정상화법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사교육 경감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사교육 부담이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사교육은 크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줄지 않고 있지요? 지금 늘고 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사교육 늘고 있잖아요.

지금 사교육은 제한하지 못하고 공교육만 금지하는 이런 방식의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오히려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돼요?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공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이 아니라 공교육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사교육은 제한하지 못하면서 공교육만 이렇게 쥐어짜면 풍선효과가 나고 결국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현실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학원의 사교육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교육에 대한 억제 효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면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직 방향도 안 정해지신 거네요, 그렇지요? 중·고등학교 이것도 내년 2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책을 시간 쫓기지 말고 바로 세워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도종환 문체부장관, 동계올림픽 잘 치러 주셨고요.

우리가 당초 목표는 4위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7위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7위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도 잘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은 금메달 몇 개로 몇 위냐도 중요하지만 전체 메달을 몇 개 땄는지 그리고 종목이 얼마나 다양하게 했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게 중요합니다. 금메달만 메달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 빙상연맹이 2008년에…… 노선영 선수 출전 불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빙상경기연맹 규정을 문구를 누락시켜 가지고 잘못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연맹의 잘못입니다.

○노웅래 위원 잘못 번역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건 더 큰 문제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2008년에?

그런데 원체 빙상연맹 내부 규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련 규정 번역을 할 때에는 먼저 외부 전문가가 번역을 하고 두 번째는 종목 심판이사가 감수하고 세 번째는 심판이 번역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절차를 거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제대로 못 거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지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발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지금 다른 종목도 국제대회 관련 규정이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한번 검수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빙상연맹 파벌 문제니 해서 팀추월 경기 때 보셨잖아요, 많은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었고. 글자 그대로 팀추월 경기는 팀경기인데 따로따로 제각각 경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선수들 합동훈련 한 적 없는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아니, 팀추월 경기인데 합동훈련을 안 하면…… 그런데 어떻게 왜 이게 방치가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런 부분들을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요, 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감사를 하고……

○노웅래 위원 감사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감독도 책임을 물어야지요, 정확하게. 감독이 왜 있어요? 그런 것 감독이 관리 감독하고 선수들 팀워크를 살려서, 글자 그대로 팀추월 경기인데 따로 제각각 경기를 했으니…… 그리고 뒤에 누가 오는지도 몰랐다고, 뒤쳐지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할 정도면 이건 기본적으로 게임에 응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빙상을 포함한, 수영·태권도 포함한,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는 감독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걸 정확하게 감사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그래서 체육계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파벌이 있다면 파벌도 바로잡아야 될 거고, 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평창올림픽은 잘 치렀는데 사후 경기장 활용하는 문제가 남은 거지요. 아직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세 곳이지요? 이건 존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존치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존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브라질에서 했던 하계올림픽에서

는 이거 존치해 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 돼서 이렇게 된 거 얘기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존치하려면 목적이 분명하고 활용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치하지 말고 돈 들어도 철거를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리고 이건 역사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념적인 거지요. 운동장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100% 존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요.

○노웅래 위원 외국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특히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기재부와 또 저희 문체부가 분담 비율 같은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다음에 분담 비율이 나오는 것이고요. 활용 방안을 생각하시고 활용 방안이 안 되면 존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하시고 외국 사례까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까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개막식·폐막식 했던 곳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거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는 남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개막식·폐막식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철거하지 말고 사후에 지붕을 씌워 가지고 야구 돔구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그러려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위에다 씌우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니까 뭔가 가벼운 천 같은 걸로 지붕을 씌워서……

프로야구 돔구장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저기 금천구 쪽인가 어디에 하나…… 금천구 쪽에 지은 것은 누가 지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서울시에서 지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에서 그때 옆에 있는 다른 의원께 저 앞에 둥그런 바닥 면적 같으면 야구장 면적하고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야구장 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철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씌워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뭔가 KBO라든지 프로야구단하고 상의해 가지고 돔구장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었는데요.

○위원장 유성엽 하여튼 그만큼 여러 가지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교육부장관님,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리고 주먹구구식 날림 정책이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나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외고 존폐에 관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했다가 유예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고 또 유예가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동안에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능하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 부분은 보다 충분히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연기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외고·자사고 문제는 사실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섭 위원 정치라는 게 물론 본인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서로 보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계가 교장공모제 확대 찬반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

요. 교장을 하려면 2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험이나 근무성적이나 연수나 실적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15년 교사경력 가지고 교장을 시킨다?

현대판 교장 음서제라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동안에 우리 교사들의 승진제도가 그야말로 점수제에 의해서만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교도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경직된 학교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2007년 9월부터 공모제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공모제를 한 이유는,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면서 한 이유는 바로 학교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학교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급속하게 공모제로 가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자율학교의 교장 공모 가운데 내부형 공모제를 제시했고요. 그중에서도 학교운영위라든가 학교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바로 비자격 교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동섭 위원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님,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인의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킨 도종환 장관님과 노태강 차관, 이희범 조직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또 자원봉사자 1만 4000명.

참 저도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동계올림픽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눈물겨웠어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 관계자들이 수고하셔서 잘했다, 이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지적할 것은 또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2000년 호주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다음에 전번에 리우 올림픽, 평창 올림픽,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저는 다 갔다 왔어요. 현장에 갔다 왔어요. 체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장웅 IOC 위원, 리용선 ITF 총재, 김일국 올림픽위원장, 세르미앙 웅 IOC 위원 등 한 20여 명을 만나서 태권도 홍보하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ITF 리용선 총재께 '우리가 비정치적으로 남북체육 교류에 태권도를 우선으로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했고 초청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장관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북의 태권도를 교류할 수 있도록, 제가 시범단 데리고 직접 갈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ITF에서 초청을 한다고 했어요?

○이동섭 위원 예,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유념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국기 태권도법 제정 관계입니다. 국회의원 210명이 서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도 안 되는데 210명이 서명했습니다. 국기 태권도 제정법이 잘 될 수 있도록, 명인 제도,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록할 수 있도록……

북한이 아마 작년 10월에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에 등록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북한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팔 같은 경우는, 네팔은 태권도를 자기들 국기로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결정되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조재기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선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저 양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평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사를 잘했다는 평을 들었어요. 난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평을 듣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계속 데모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체부 앞에서도 데모할 걸요? 나한테 와서도 데모하고, 그다음에 진정서가 이렇게 올라와요.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 태권도 공인 9단이고 세계태권도연맹에 사무차장을 지냈고 국기원 의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IOC 교육을 받았고 영어에 능통해서 아마 영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정도, 고령인 것은 인정해요. 그런 사람을 놔두고 내가 볼 때 태권도 전문성이 별로 없

는 사람이 됐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태권도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분을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한 1분만 더 주시지요.

태권도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가라데한테 100% 밀려요.

그런데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기관이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장을 정부 입맛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대통령선거 때 공신이라고 시키면 되는 겁니까! 여론을 수렴해야지요!

저는 인사권이 없어요. 저는 몰라요, 누가 됐는지도. 최소한 태권도계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지. 지금 태권도가 위기에 놓여 있다니까요. 제가 아주 그냥 피를 토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관님,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이종배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요즘 '부총리 패싱, 장관 패싱'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정부질문 때도 나오고 많이들 나오잖아요.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부총리님 못 들으셨으면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패싱'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장관님이 하실 일인데 장관님이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청와대만 바라보기 때문에 패싱이란 얘기가 나오고, 장관님 하실 일 부총리님 하실 일을 청와대에서 지침을 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패싱이란 얘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장관님 생각이세요.

충북대병원장 임명권,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종배 위원 충북대병원장 임기가 지난 1월 21일인데, 아직도 임명이 안 됐어요. 이게 지방신문에 나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건데, 1월 20일 3개월 전에 충북대병원에서 공모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협의하니까 교육부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행하라'가 아니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이걸 청와대에다가 협의하는데 청와대가 바빠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교육부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박춘란 차관, 고등교육정책실장이지요? 전화를 몇 차례 했어요.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빨리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줘라. 대학병원장이라는 게 의사끼리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무슨 지침이 필요하냐? 빨리 해서 진행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1월 초에 제가 얘기한 거죠. 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돼 가지고 자체 공모해서 이사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왜 장관 권한을 갖다가 청와대에 물어봅니까? 그냥 장관이 진행하라고 그러면 되지. 병원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교육부에 2개월 전에 추천해야 된대요. 그러면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그 절차가 있으니까 2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2개월 후에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 권한을 제대로 행사 안 하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해바라기같이 하니까 '장관 패싱, 부총리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장 임명도 상당히 늦었어요, 늦어. 어떤 것은 7개월 넘게 임명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7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다가 임명했고요.

문체부장관님, 지금 공석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장관님이 임명해야 되는 여섯 자리가 아직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종배 위원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이런 공공기관은 실무 집행하는 기관이고, 장이 없으면 실무 집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바뀌는 상태에서 빨리 임명이 안 되면 새로운 정책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렇게 질질 끌어 가지고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다 국민들이 입는 거예요. 빨리 하셔야지, 왜 청와대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인사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검토 중이다,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깜깜한 속에서 진행 중인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잘 몰라요. 질질 끌다가 임명되는 것 보면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국무위원들까지는 같이 정책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공기관장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적폐청산 외쳐대고 있는데, 이런 걸 고쳐야지요. 왜 똑같이 하세요? 전에도 물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쳐야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신적폐를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진행하시지 않으면 이제 직무유기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가 관여하면 인사에 관여하는 거고, 직권남용이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적폐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인사를 제때 제때 하셔야지요. 또 '보나코 인사' 안 나오도록 적임자를 선별해서 선정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답변시간을 주시면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그러시지요. 조금 이따가 드릴 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종배 위원 먼저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시겠어요?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관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계 의견을 들어서 출판계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진을 구성하고 원장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출판계 의견을 수용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 임명해 온 것도 보면 어떤 분들은 13개월 18일 지나서 임명한 게 있어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고. 8개월 9개월 임기가 그렇게 지나서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 여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종배 위원 장관 권한이면 아주 소신 있게 적임자를 빨리빨리 제때, 임기 끝나면 바로 임명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앞서도 질문하셨는데, '무자격 교장공모제' 부총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 다 끝났지요? 대통령령 입법예고가 끝났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서 그때까지 들어온 의견을 가지고서 지금 내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검토 중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입법예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 보니까 학교에서 공문으로 보낸 게 전체 217개던데요. 찬성은 5개에 불과합니다. 반대가 199개, 기타 13개 학교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전체적으로 한국교총이나 실천교육교사모임……

○이종배 위원 아니, 학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서 들어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학교에서 공문으로 보낸 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군다나 인사가 그동안 우리가 시범적으로도 했고 15%도 했고 해 왔잖아요. 이러면서도 문제가 된 것이 자꾸 코드인사 또는 선거 때 도와주는 보은인사로 흐를 염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됐거든요.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육감선거 합니다. 이런 걸 앞두고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학교에서 제출한 반대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선을 다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도종환 장관님, 두 분 차관님 그리고 문체부의 모든 직원 분들 또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께 감동과 희망의 17일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3월 9일 개막하는 패럴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패럴림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패럴림픽 역시 평화패럴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평창올림픽에서 그야말로 옥에 티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자원봉사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차량 배치문제라든지 배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패럴림픽 때는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다니다 보니까 올림픽 개최지 인근에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통통제 구역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상인들의 매출이 떨어졌고 또 KTX가 개통이 되다 보니 편리한 점은 있었지만 그 인근의 숙박 수요는 매우 줄어들어서 소형 숙박업소에는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불편이나 손해를 감내하시는 평창·강릉 지역의 지역민들에게도 뭔가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안과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답변드릴까요?

○유은혜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패럴림픽 준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옥에 티인 자원봉사자 문제도 패럴림픽 때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초기에 차량이 부족해서 차량 90대 이상을 재배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는데요, 초기부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먹는 문제, 처음에 이게 SNS에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뷔페식당인데 그렇게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뷔페식당인데. 접시에다 빵하고 몇 개 갖다 놓고서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는 뷔페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접시에다 그렇게 갖다 놓고 찍어서 올린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먹는 것, 자는 것 또 이동하는 문제 지난번처럼 올림픽 초기의 불편함 같은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요.

또 지역 상인들 가게, 숙박업소가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은 점 때문에 울상이시라는 말씀도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는 숙박업소가 바가지요금으로 전 세계에서 온 분들에게 우리나라 이미지를 흐리게 할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KTX가 개통되면서 바가지요금도 줄어들고 다들 서울 가서 자고 이러면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숙박을 통한 이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올림픽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패럴림픽의 성공이 우리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완성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완벽한 대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미투 운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힘들게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용기가 추가 피해로 돌아오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곪을

대로 곪아서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우리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넘어서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자인 남성이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저는 이번 일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용의 원칙이지요.

제가 이 원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체부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예술 분야가 예술과 인권의 경계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여기에 위계와 권력이 더해지면서 그 어느 곳보다 여성이 성적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듯이 문화예술 분야가 미투 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부가 무관용의 원칙을 강고하고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관용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몇 사람만 건너뛰면 다 알 수 있는 관계망을 문화예술 분야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부 직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님 이하 모든 공무원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인간관계가 정말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분야인데 이렇게 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가 관계돼 있는 분야를 소관하는 기관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산재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이나 집중성이 보장이 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정말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통합신고센터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오늘 인사하신 김희경 문화부 차관보께서 인권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차관보님이 책임자가 돼서 통합적인 대응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실효적이고 강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가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피해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미투 운동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문체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예술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 이런 일이 예술계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 등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부분까지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이런 문제를 협조를 받아 가면서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까지 같이 검토하겠고요. 또 차관보하고 같이 이것 책임을 맡기면서 해 보는 게 어떠냐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주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교육부장관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분위 위원 문제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국회 권력이 교체가 되고 정부 권력이 교체되기 이전에 임명된 분들로 다 남아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5명이 임기가 3월 17일 날로 대거 끝났

지만.

그런데 문제는, 작년 4월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장 유성엽 아직까지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분위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서 잠깐만……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대학실장이 잘 아시나요? 누가 잘 아시나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석입니다.

그 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년 4월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두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말에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유성엽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대법원장이 아니고 국회의장. 작년 4월 달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있을 것인데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석 그 위원은 현재는 위촉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작년 4월 달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은 됐다 그 말이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석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몫이 현재 인사검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인사검증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것 얼마나 걸렸지요, 작년 4월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에 대한 검증 기간은?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석 작년 4월, 5월, 6월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상당히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9월 이후에 아마 인사검증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더군다나 국회에서 추천한 것을 갖다가 1년 가까이 청와대 인사검증 한다고 미루는 것은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주질의가 다 끝났는데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정숙 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시면 위원님들이야 그래도 잠깐씩 잠깐씩 나갔다 들어오셔 가지고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그런데 정부 측 관계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관련입니까?

○장정숙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장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도종환 장관님, 아침에 제가 국립오페라단 윤호근 신임단장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장정숙 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연전통예술과의 주무관이 답변하기를 '별도의 공모 과정과 서류제출이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절차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까 보신 자료……

○장정숙 위원 단순히 이 자료만 갖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자료를 가지고……

○장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단순비교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깔아 놓은 간부직들 이력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 직원들.

○장정숙 위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윤호근 씨 것을 보니까 여기 임명할 때 공모절차 거칠 때 낸 약력 카드하고, 이건 아마 네이버에서 저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뭐 윤호근 단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직무에 충실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으면 씻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우리가 작년에 국립오페라단 감사할 때 김학민 전 단장을 제가 증인 출두해 주시라고 했을 때 두 번이나 안 나오셨습니다, 김학민 전 오페라단장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원에 저기하고 제재 조치를 들어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오페라단이 아주 깜깜이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립오페라단 직무대행을 하시던 분은 국립오페라단과는 전혀 무관하시고 전공도 전혀 안 하신 분이 직무대행을 하셨기 때문에, 불란서하고 같이 하기로 한 오페라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아서, 본 위원이 또 이쪽에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받으셨잖아요. 독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 단장님께서 12년 동안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독일어로 됐을 때 한글번역본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한테 왜 번역본을 제출 안 하십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번역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예술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원본성을 저희가 생각해서 드린 거고요. 원본을 정확성을 생각해서 원어로 드린 거고요. 번역본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독일어 원본을 공인 검증된 번역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공인 검증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공인 검증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번역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역도 누가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인된 검증 번역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공인된 검증 번역본은 없습니다.

○장정숙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번역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제가 자료를 조금 이따 드리겠는데요.

○장정숙 위원 이런 게 국민들로부터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을 대표한다는 문체부에서 이러한 아주 정말 상식적인 선이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호근 지휘자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요? 내가 뭐 윤호근 단장님을 비하해서 하는 발언도 전혀 아닙니다. 윤 단장님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사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공인 검증된 번역본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인 검증된 번역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리고 공모절차가 없었을 때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이영열 예술정책관한테 묻겠습니다.

홍 주무관이 저한테 이런 서류를 보낼 때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국장입니다.

○장정숙 위원 국장님께서 이것 오케이하고 저한테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 주무관이 그냥 보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저희 국에서 나가는 모든 자료는 제 책임과 권한입니다.

○장정숙 위원 책임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일체 받은 게 없다는 서류가 어떻게 여기에서는 지금 존재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모절차에 의한 자료를 받은 게 없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장정숙 위원 공모절차에 받은 자료가 없어요? 공모는 아니지만 추천을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모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문체부에서 뭘 뽑는다는 거고 공모절차가 없지만 별도의 공모과정을 거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지 왜 없다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그러니까 공모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절차에 따른 의무적인 제출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정숙 위원 의무적인 제출사항은 없지만 홍주무관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저는 국회법상 국회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매번 문체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 도종환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장정숙 위원 이 자료 말고도 윤호근 단장님께서, 음악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어떤 어떠한 프로그램의 지휘를 했다, 객원지휘다 부지휘자다 뭐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것 받으십시오.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예,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부지휘자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체부에서는 부지휘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감싸 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님, 부지휘자에 대한 해석이 계약이나 나라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니까 검증된 번역본 제출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장관님, 자료…… 공모할 때 공모 절차는 안 거쳤지만 심사 때 내신 자료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자격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예.

○장정숙 위원 독일어 번역, 공증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번역본.

○장정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자료제출 요구가 질의답변처럼 되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처음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하고 서면으로 답변 자료 낸 것하고 보면 분명히 장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은 저녁 시간 없이 가급적이면 보충질의에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위원 질의 시간 안에 자료제출 요구를 포함해서 말씀을 잠시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최종 보고서가 3월에 작성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도 이미 용역을 수탁을 받았던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작년 연말에 최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문체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관님께 보고가 상세하게 다 정확하게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쇄 전 단계라서요 곧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예.

미투 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과는 양상이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물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진통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오히려 시간이 상당히 늦은 그런 감이 있는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 2012년도 4월에 있었던 연예기획사 연습생 11명을 상대로 했던 대표의 성폭행 사건 때도 지금과 같은 전 분야를 망라한 차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큰 사회적인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金世淵 위원 그때도 문체부에서는 2012년도 5월에 연예기획사 전수조사를 하겠다, 기획사와 매니저 등록제를 하겠다 해서 제도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DB를 구축을 하고 기획사 세부 정보 또 매니저 확인 시스템 이런 것을 다 가동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도 당시에 전수조사에서도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아무리 대책을 잘 세우겠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항상 이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또 다른 미래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도 콘진원 내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종합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화 분야, 문화예술 분야, 대중문화 분야에 각각 성평등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신고상담센터, 콘진원 내에 또 다른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미 2012년에 개설이 된 종합신고센터, 성폭력 관련된 상담을 하기로 지정이 되어 있던 이 센터에서 몇 건이 상담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건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봐서……

○金世淵 위원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2012년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그런데 그 사이에 2014년 1월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 성 관련 범죄 저지른 자는 연예기획사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법제가 다 갖추어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14년 7월에 이 법이 시행되었고요, 2015년부터 연예기획사 등록제가 시작이 되었고, 연예기획사 대표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범죄 경력 조회가 실시가 되고 있고, 또 여가부에서도 별도로 이 조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한데, 2015년도에 이런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된 이후에 성범죄 관련해서 연예기획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역시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20대 여배우 성폭행해서 연예기획사 소속 직원이 징역 4년 선고 받고, 2016년 8월에 연습생에게 성 로비 할 줄 알아야 된다면서 옷을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되어서 1년 6개월 형 집행된 바가 있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부분을 털끝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주관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바가 있고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특히 문학계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으시겠지만 가혹하다고 할 만큼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하게 소감과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연예계 성폭력 사건 이후에 등록제를 시작해서 매년 업자의 성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 이후에 조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콘진원에 센터가 이미 2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독일 통일 정책을 설계한 에곤 바의 말입니다. '통일이란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회담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회적인 일이 아니다. 수많은 조치와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과정이다' 깊이 공감이 되는 말인데요. 이번 평창올림픽이 통일을 대비하는 의미 있는 정류장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회적 갈등의 유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경평축구 부활을 제안을 했고요,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도 경평축구를 다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평양시 선수단 참가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도종환 장관님은 이 제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려고 하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수정권 동안 남북 문화교류도 거의 단절된 상태인데요, 재개를 검토 중인 남북 문화교류 사업이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남북 문화교류 중단된 것 중에 바로 재개할 필요성들이 거론되는 것으로는 개성 만월대 왕궁 발굴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진행되는 중간에 고려 때 금속활자가 거기에서 출토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고려 때 금속활자가 만월대 터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경미 위원 그게 언제 중단되었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2015년에 중단되었으니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말이 서로 달라 가지고, 단일팀·유일팀 서로 다르고 또 고산스키·알파인스키 이렇게 용어들이 다르고 그랬는데, 이런 사전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바로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평축구도 박원순 시장이 제안을 했는데, 제안 정도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래도 김영남 위원장이 또 언급을 해서요, 이낙연 총리 주최 오찬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 경평축구를 서울시장이 내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거기에 맞춰서 경평축구도 부활하자는 제안을 했고 또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그 차원 외에 아직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도 남북 체육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 교류도 태권도인들끼리 서로 제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제안이 들어오면 문체부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여러 가지 권고를 했는데요, 그중에 교육부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성교육 10시간 보장인데요, 교육부에서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서 배포를 했고, 2013년에는 연간 15시간 이상으로

성교육 시간을 늘려서 의무화는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성교육 내용입니다. 여전히 어떤 생식기 구조와 임신, 출산 등 생물학적이고 보건 중심의 성교육이 중심을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건강한 성 의식을 갖고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갖출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초중고의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유엔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침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인권 교육과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 그것은 제대로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페미니즘 교육은 여성, 장애, 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배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고, 젠더 감수성, 장애 감수성 등을 갖추려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역지사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페미니즘 교육과 관련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페미니즘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성평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교육과정에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초·중등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깊이가…… 조금 더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더 드렸으면 하겠는데 오늘 보충질의로 마무리를 하려면……

다음에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김상곤 장관님, 최근에 공공기관 또 은행권 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립대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에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최종면접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공정성의 논란이 될 소지가 아주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전남대 본부의 깜깜이 식 공채 진행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정된 심사 이틀 전에 교무처장이 전화로 심사위원 교체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원래 심사하기로 했던 교수는 전화로 교체 통보를 받아요. 그런데 음악 전공자도 아닌 교무처장께서—조경학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식 절차도 없이 이렇게 즉석으로 심사위원을 교체를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재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합격했던 지원자는 최종면접 하루 전에 또 재심사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재심사를 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근거도 밝히지도 않고 진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겠지요, 그렇지요? 장관님이라도 반발하셨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런데 재심사위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남대 구성원은 한 명도 없어요, 장관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과정도 알 수가 없고요,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채용 과정, 공정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전남대에다가 회의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는 제출 안 하겠다고 해요. 아니, 본 위원은 물론 장관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회의록 좀 받아 주십시오,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지금 그래서 광주지법에서 본부 재심사 강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법에서도 이럴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최근 또 경북대에서도 채용 비리 논란으로 검찰 수사 들어갔지요. 그것도 모르고 계세

요? 알고 계세요, 그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럴 정도로 국립대 채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일까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규정 미비예요, 장관님. 그래서 자율성은 보장을 하시되, 규정이 미비한 부분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대통령도 채용 비리 근절 주문하고, 권익위는 채용 비리 전수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교육부 차원에서 전남대 비롯한 국립대 채용 논란에 대해서 전반적 점검을 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주대 총장 임명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4년째 총장이 공석 상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사정이 너무 너무 복잡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교육부가 특정 교수를 총장에 임명한다라는 소문도 아주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내부에 반발이 있지요. 4개 대학이 장기 공석 상태에 있는데 이제는 공주대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가 자초한 책임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장정숙 위원 왜, 당초에 뽑았던 총장후보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재심의에서는 또 적격하다고 판단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이전 정부에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장정숙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적격하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러면서 그동안 3년 이상을 끌어 왔는데……

○장정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부 하는 일이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의사결정을 밀실 위주로 부치고요.

아무튼 이게 1순위의 어떤 총장후보랑 교육부가 지금 총장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중이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2심까지 패소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런데 그 사유를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 23조에 의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당사자한테는 왜 공개 안 하십니까? 2심에서는 행정절차법 위반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졌지요. 소송까지 불러일으키고 결정하고도 작년에는 또 다시 적격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번복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도 안 하고 결정하고 번복하고 하니까 대학 구성원들이 지금 반발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상이 된 사안이라 이것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라고……

○장정숙 위원 구성원들은 87.7%가 반대하고 있다니까요. 교육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다시 뽑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장정숙 위원 대법원 판단이 끝나야 개정을 할

수가 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장관님이 취임을 하셔서 3대 원칙을 정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 부분, 확실하게 지켜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가능한……

○장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성엽 장정숙 위원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마이크를 못 넣어 드려서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도종환 장관께 잠깐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왜 교육부에 가 있지 않고 문화부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화 전문 인력 중에 특히 영상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또 음악이라든가 재능 있는 학생들을 문화 인재들로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라서 문화부에 속해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재능 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포멀한 학제보다는 조금 다른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예종 출신들, 세계적인 그런 젊은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에도 학교가 하나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무슨 학교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 학교 생긴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 학교도 지금 문체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만큼의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일단은 초기의 출범이 이론적으로 출발한 잘못은 있지만 부분 부분 개선해서 실기 중심으로 많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2년째 보는데요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 전공은 다른 일이지만 제 관심사가 전통문화나 전통공예에 있다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같이 왜 전통 쪽에서 그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아주 깊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그 학교가 이론을 위주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러 왔지만 책을 보고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과 몸으로, 손으로 익혀서 하는 것과는 그 시간과 노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재능도.

그러니까 한예종 같은 학교가 생겨났고 그래서 전통문화학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청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만 도달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승하고, 다시 우리 후손에 우리가 받은 것만큼, 그 이상 우리 이 시대의 가치를 담아서 넘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제 보셨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4년도에는 한 49%의 실기 비율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로 늘렸습니다.

다만 교수진의 구성이 학생 수를 감안하면 한 46명이 필요한데 현재 36명밖에 티오를 확보를 못 했어요.

○손혜원 위원 그런데요 그 36명 중에 지금 교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느냐 하면 그중에 건축·조경 분야가 36명 중에 열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고고학 전공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학기에 수백 명이 다니는 그런 미술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고고학 관련되거나 우리나라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가르치는 그 전문 교수님이 단 한 분 계셨습니다, 전공 이론으로.

여기 지금 고고학 관련되는 분들, 박물관학 관련되는 분들이 8명 정도가 있어요, 36명 중에서. 그리고 문화재 보존 및 뭐 이런 쪽 분야로 해서 또 7명이 있고요, 실기는 4개 과에 단 6명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학제를 갖고는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어떻든 간에 과거에 그렇게 이루어진 점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

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지금 저한테…… 아니, 시간 갖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마치 치과의 통증 같은 겁니다. 배 아픈 것은 아프다 안 아플 수도 있고 머리 아픈 것도 이 통증이 사라질 수 있지만 치과는 계속 썩어 가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됩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어떻든 간에……

○손혜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이론과 실기의 비율이 어떠냐 했더니 실제로 이론이 34.5%이고 실기가 65.6%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작년부터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36명의 철벽 같은 그 교수님들은 다 그대로 있는 채 강사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여기 교수로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지금 그분들은 주로 강사로 쓰고 있고요.

○손혜원 위원 왜 강사로 씁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어쨌든 간에 티오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노력을 더 강화를 해서 확보되는 풀을……

○손혜원 위원 제가 오늘 공론화를 시킬 테니까 청장님, 저랑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논의를 해서 근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교육부하고 문체부 두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에, 무슨 체육계 파벌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18대 때부터 있으면서 늘 얘기한 게 체육특기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스피드스케이팅이 됐건 어떤 체육종목이 됐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그 대학교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 감독도 알고 있고, 아주 특출한 아이 빼 놓고는. 이런 것이 다 비리로 또 부정입학으로 지금 이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사해 봐야 알지만 김보름 선수 팀추월이 문제되고 아까 장관께서는 '조사해 보겠다' 했는데 희생은 선수가 희생을 한 것이고 그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체육계 어른들이 잘못한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전형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어떤 개선 없이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체육계의 파벌 이것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번 계기로, 그 진상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부처가 합의하셔 갖고 잘 좀, 체육계의 입학비리, 끼워 넣기……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대학 체육특기자 120명 중에 한 오륙십 명이 1학년 다니고 운동을 그만둡니다. 다 끼워 넣기로 들어간 학생이라고 봐야지요.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이거 고쳐야 돼요.

교육부장관님, 입학금 폐지 이것은 일면 옳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또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장관님께서는 후보 캠프의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관한 필요성을 역설하신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도 근간에는 하신 것 같아요, 부모가 부자인 아이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지금 고3 졸업하고 대학 가는 학생이 몇 %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대체로 70% 좀 안 됩니다.

○한선교 위원 70%?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못 가는 30%는 '나는 대학을 안 가도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조금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못 가는 학생도 있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많은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됐겠지

요, 가는 아이들보다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제 말씀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대학이라는 것은 선택된 수요가 창출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됐건 학력적인 이유가 됐건 가는 아이, 못 가는 아이…… 가는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가는데 지금 교부금법 이런 것들을 고쳐 갖고 국민세금으로서 입학금으로 나오는 어떤 재정의 부담, 대학교의 부담을 세금으로 지금 메꿔 주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능력 있어서 대학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면 부모가 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못 가는 아이들은 세금혜택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공약이라는 것은 꼭…… 어떤 대통령후보가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게 꼭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분이 통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5년간 노력한 것이 다음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의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이 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도 장관님께 이러저러한 정책을 내놓고 했지만 청와대의 어떤 반대로, 때로는 국민여론의 반대로 다시 접은 것들이 많잖아요, 유예시킨 것도 많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법을 고쳐 갖고 1년에 이조몇천억이 들지요?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5년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게 하늘에는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분명히 BK사업이라든지 그 밖의 이제까지 대학에 지원했던 모든 의미 있는 사업들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차관?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면 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국가로부터 국민세금으로 다시 더 많이 걷어 들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선교 위원 지금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겠지요.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교육부에서 부실대학이라든지 비리사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지금 입학금 폐지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가장학금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한선교 위원 2형 장학금은 대학을 거쳐서 학생에게 고스란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것도 일부는 학교운영비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한선교 위원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마이크 안 넣어 주셔도 됩니다.

대학에서 50이라는 외부 장학금을 얻어 왔어요.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50의 매칭으로 50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2형 장학금? 그 지원해 주는 50은 어디로 갑니까? 학생에게 전부 다 장학금 갔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갔지요? 학교는 거쳐 가는 역할만 했습니다.

장관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형 장학금이 학생에게 안 가고 일부를 장학업무를 하는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그 밖의 입학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정적인 부담 여기에 장학재단에서 들어가는 장학금 이것은 절대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은 기본적으로 장학금으로……

○한선교 위원 아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왜 또 말을 돌리세요?

차관 옆에서 들으셨지요? 똑같이 끄덕대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다음 순서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님, 올해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콘텐츠산업 육성을 강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올해 목표로 콘텐츠 수출을 73억 달러 그리고 일자리 64만 명 창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콘텐츠를 진흥하려면, 수출하려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콘텐츠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아직도 미흡하고 허술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또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지만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웹툰이 인기입니다. 장관님, 웹툰을 소재로 한 영화 '신과 함께'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한정 위원 드라마 '미생'은 이미 흥행에 대성공 했고요.

웹툰시장이 이런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7240억 원 규모, 올해는 더 성장해서 2020년 되면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밤토끼'라는 모바일 웹 사이트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밤토끼? 이게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데요. 돈을 내고 보는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보다 클릭 수가, 페이지뷰 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결국 웹툰 작가들의 창작 열의를 꺾고 또 그 산업 종사자들에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문제는 문체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웹툰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한정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대개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국내 단속을 피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접속 차단을 실시하고는 있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움도 또 따르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면 국제적 협력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도의 대책이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한정 위원 25명으로 들었습니다. 이 숫자도 과연 이런 방대한 불법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암약하는 불법 복제 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는 데 과연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배치인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민간 모니터링도 상황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필요하면 상반기 중에 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 이런 것도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이 불법 웹툰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불법 도박 또 음란 사이트 이런 것을 광고하는 포털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총 집합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합동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의 하나의 대책위원회도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런 차원의 노력들이 더욱더 문체부 중심으로 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우리 콘텐츠시장 육성, 수출산업으로서의 전망도 보장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삭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도 같이 함께 대응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을 남겼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김상곤 장관님, '집필기준 1월까지 확정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엉망진창, 그렇게 편향적으로 만들어 놓은 집필기준 이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자료, 작년 7월에 내셨을 때와 스케줄이 달라져야지 되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부계획들은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집필기준 확정 및 교과서가 2020년 3월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졸속 검정교과서 안 되도록 계획을 다시 짜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내부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아직도 짜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예단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요 조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예단이 아니라 지금 집필기준이 그렇게 됐고 교육부가 애초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집필기준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희경 위원 집필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러니까요.

○전희경 위원 교육부는 1월에 집필기준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집필기준이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의견도 아니라고, 교육부 및 국무총리께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니 필연적으로 시간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교육부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라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질의를 할 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만 발 동동 구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학계하고 시·도교육청들한테 받았다고 하는 140여 개의 개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서 집필기준하고 교육과정 이렇게 수정하라고. 지금 그 수정 내용을 목록만 보내셨어요, 원 자료를 안 주시고. 그런데 이 목록에 있는 내용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안이라고 한 것하고 똑같아요. 이 개정 목록대로 한 것이 발각이 돼서 그 난리가 난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지 않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제가 여기 목록하고 다 비교·대조해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원 자료를 안 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원 자료를 안 주시고 목록만 주시고, 심지어 교육부가 낸 보도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정 요구사항 140여 건 대비 19년 적용 시에는 이 개정 요구의 40%를 적용할 수 있고 20년 적용 시에는 약 90%를 적용, 차기 교육과정 적용 시에는 100% 수용' 이라고 했어요, 이 엉터리 개정 요구사항을. 그러면 원 자료를 당당히 밝히셔야지요. 왜 원자료를 안 주세요? 그토록 교과서 집필이 깜깜이 집필이니 밀실 집필이니 뒤에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교육부에서 보내신 이 140여 건의 목록에 따른 원자료를 제출하시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100% 적용 가능하다고 한 검토의견서, 누가 검토했는지, 그 검토의견서가 어땠는지 검토보고서까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출해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우리 내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내부에서 판단이 아니라 국회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게 국가기밀과 국가안보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자료가 있지요, 이렇게 교육부가 검토하고 냈으니까.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전희경 위원 주십시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 자료제출에 대해서 뭘 그렇게 검토를 하십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전희경 위원 아니 투명하게 하자고 하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시간 갑니다. 문체부에도 질의해야 돼요.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단순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제시해 놓아서……

○전희경 위원 또 왜 말을 자꾸 돌리십니까? 여기에서 검토를 했고 개정 요구안을 받았다 그러면 자료가 있는 거지요.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알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주십시오.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을 ‘흑자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 기업들이 1조 1123억으로 목표액 9400억 원보다 더 냈고 그리고 국내 입장권 판매의 30%가 중앙부처·지자체·교육기관·기타 기관 이렇게 해서 사실상 기업들의 노력과 국민 세금으로 치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기업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요. 또 공공기관에는 협조 요청을 부탁했지만 강매를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저 3분 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유성엽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1분 넣어 드리세요. 원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1분만……

○위원장 유성엽 예.

○전희경 위원 전임 정부가 기업들에게 스포츠니 이런 것의 후원을 강요했다라는 비판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정부 아닙니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아예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표를 팔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것대로 계속해서 세금으로 쓰고 흑자 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가행사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온 국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치러 내는 것은 그것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또 강제로 모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희경 위원 강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부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일선 기업이나 기관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는 압박이요, 이번 정부에서는 강요가 아닌 자발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앞에서는 남고 뒤로는 밑지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는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고찰을 좀 더 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기업이 협찬을 하면 올림픽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해서 기업이 홍보가 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전희경 위원 다 홍보라는 명목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또 기업 이미지가 올림픽과 연관되어서……

○전희경 위원 기업들도 다 그런 명분을 세워서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명분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전희경 위원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런 점을 비판해 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조승래 위원 그게 어떻게 또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돼요?

○전희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성엽 전희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이따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니 이미 그것은, 올림픽 관련되어서는……

○전희경 위원 ‘완전무결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하시지는 마시고요. 기업이 후원을 하고 협찬을 하면……

○전희경 위원 그 답변이 비약입니다. 왜 ‘개선을 하라’, ‘좀 더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후원을 하고 협찬을 하면……

○전희경 위원 답을 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엄혹한 시절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회의 진행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노력한다는 얘기를 못 하세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엄혹한 정권입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기업이 후원을 하고 협찬을 하면 기업 이미지를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희경 위원 역대 정부도 기업이 로고 쓰고 다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강요라고 하고 강제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올림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성엽 전희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전희경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리고 올림픽이 흑자를 낸 것은 기업에 무슨 강제성을……

○전희경 위원 왜 장관님들이 답변을 ‘그래, 더 노력해 봅시다’라고 건설적인 답변을 그냥 하셔도 될 사안을 완전무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완전무결하다는 말 한 적도 없고요……

○전희경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러신 겁니다.

(「그만 좀 하세요, 듣자듣자 하니까 정말」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성엽 자, 전희경 위원님과 장관님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전희경 위원님의 마음에 흡족한 답변이 건설적인 답변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희경 위원 제 마음에 흡족하라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니, 올림픽 끝났는데 무슨 노력을 더 합니까.

○위원장 유성엽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마무리……

○전희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나라에 올림픽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요.

○전희경 위원 세계대회가 없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성엽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전희경 위원 왜 그렇게 엄혹한 시절의 장관들처럼 태도를 그렇게 하세요? 참 이상하십니다. 건설적인 제안에 그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만 좀 하세요! 혼자만 질의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성엽 자, 여러 위원님들…… 전희경 위원님도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전희경 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참 이상하십니다.

……

○위원장 유성엽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떻든 시간을 좀 초과해서 발언하고 계셔도 동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끼어들거나 그러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 순서는 이은재 위원님이 발언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원래 순서가 장정숙 위원님과 손혜원 위원님 사이에서 질의하시도록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질의 차례에 여기 안 계셨어요. 그러면 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종배 위원님이 간사석에 앉으셔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고 또 아까 사과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질의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질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예, 우선 문체부장관님께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저희 지역구에 GKL(그랜드코리아레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사장 자리가 빈 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아마 이사장 자리를 공모 중인데 이미 유태열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문재인 캠프에서 2012년, 2017년에 일을 했던 그런 캠코더 인사를 내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려보내면 되지 왜 공모 절차를 밟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숨겨 놓고 공모 절차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기에 공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李恩宰 위원 그러면 아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밖으로 밝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李恩宰 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모를 다시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

○李恩宰 위원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지금 들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李恩宰 위원 장관, 우선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李恩宰 위원 그러시지요? 특히 2015년부터 2017년도 공모교장 50명 중에 80%인 40명이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런데 신청 학교의 15% 규정을 없애서 사실은 정치화로 몸살을 앓는 학교를 전교조에 넘기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李恩宰 위원 그런데 일반 국민이나 일반 언론이나 일반 교사들, 교육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정책을 잘못 내시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다시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체제를 갖추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정을 다시 만드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장공모제는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게 국민들 또 교육계의 요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교장의 80%가 전교조 선생 출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반학교 공모교장이 있는 자리라 그러는데 왜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까? 교사가 자살한 것 아시지요? 교장공모제는 이렇게 가면 결국은 교사 죽이는 교장공모제가 되는 겁니다. 강원 태백기계공고 교사가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모교장의 횡포와 억압에 결국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죽은 선생님 말고도 다른 교사들에게도 강요와 협박은 물론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아서 동료 교사 45명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지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알고 계시지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개별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세요. 교장공모제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시정을 하든지 교장공모제를 중단하든지 그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관여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교장공모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교육자, 언론이 볼 때 교사를 죽이는 제도다……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1분 더 주세요.

○李恩宰 위원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으로 교장이 된 교장이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무엇이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자료 있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교문위원들 전체에게 주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예전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최근에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없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다음에 공모교장의 임기가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이 된다는 지적 또 공모교장의 실적 쌓기 경쟁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교장공모제의 시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시 이것도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공모교장제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공모교장제가 그동안에 역할을 해 오면서 학교 분위기들을 바꾸는 데 무척 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들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李恩宰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셔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사가 죽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달라는 겁니다.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공모교장제 자체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형공모제 제한을 좀 완화시키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李恩宰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제가 순서도 앞으로 많이 바꿔 주고 또 이례적으로 1분도 더 드린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엽 다음에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제 순서인지 몰랐습니다. 순서가 하도 왔다갔다 해 가지고 제가……

올림픽의 기업협찬 혹은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기업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후원사, 공식후원사지요. 공식후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압력을 행사한 바도 없고, 실제로 올림픽의 공식후원사로 등록하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는 마케팅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서 매복 마케팅을 못 하도록 할 정도로 올림픽의 공식후원사는 그만큼 마케팅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올림픽하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같은 기업에 강요를 해서 후원했던 것하고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는지 그것 납득이 가십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치원부터 초·중등 다 해서 한 2만 개 정도의 학교가 있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중에 공모교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비자격 교장은 작년 3월 1일 자로 56명입니다.

○조승래 위원 56명. 그러니까 56명 중에서, 56명이라 하면 전체 따지면 퍼센티지로는 극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0.6% 정도 됩니다.

○조승래 위원 예, 0.6%. 0.6% 중에서 교사 출신, 그건 특정해서 전교조 출신이라고 하던데 교사 출신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사 출신이 56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승래 위원 56명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교장 대상 중에서 0.6%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특정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교사들도 뛰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법령화한 셈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교장공모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정책이 아니고 이미 여러 정부, 참여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조승래 위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정부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4개의 정권에 걸쳐서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비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자격이 조금 미달되는 사람이 교장이 된다거나 또 그렇게 해서 공모형 교장이 된 사람 중에서 교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했거나 그런 것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교장공모제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도 또 교육계의 많은 분들도 실은 교장공모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들 공유하면서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제가 2014년도인가에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공모교장을 위한 운영위원회 면접이 있어 가지고 관심 있는 학부모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물론 단독응모하셔 가지고 치열하거나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모에 응하는 교장후보자가 학교를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학부모들, 교사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들한테 그 계획을 설명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한 시도 같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있지만 이미 혁신학교도 도입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이제는 혁신학교를 혁신학교 개수를 막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혁신학교에서 축적된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승래 위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나 학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나 지역사회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나 등등 다양한 성과들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혁신학교를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화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학교가 바뀌고 또 학교환경이 바뀌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그것을 앞서서 혁신학교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혁신하고 변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점차 우리 모든 학교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 질의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교과서 집필기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철규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온 기준안들 중에 사적 의견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하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이철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철규 위원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과정인데 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의견들이 만약에 개인, 위원 한 사람이 사적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사장, 묻혀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기준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교육부의 지침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지요.

장관님, 저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문제 제기하시는 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철규 위원 자유민주주의 그런 게 아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남침이나 이런 사안들인데요. 그러한 것은 지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거고 제시된 거고요.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시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신 적 있느냐 이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이철규 위원 묻는데 장관님은 자꾸만 다른 말씀으로 돌리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 질문이.

여기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조금 오해에서 빚어진 말씀이셔서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북한 인권문제 같은 것이 이번 집필기준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3대 세습체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한 북한의 6·25 남침 부분, 이런 것들이 삭제되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굳이 직접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시기가 뭐하다 하더라도 우리 김상곤 장관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장관님 정도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것 정도쯤은 막아 주시겠다, 막아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것을, 지금 장관님의 답변 모습을 보면 이것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저도 보충해서, 질의 안 하려다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지금 집필기준의 대강화, 다른 말로 하면 간소화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 건데요……

○이철규 위원 장관님, 제가 교과서 문제가 하도 논란이 많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도 서점에서 몇 권의 책들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는 역사교과서가 별도로 없지요, 사회 과목에 들어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철규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살아있는 역사 재미있는 논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교재들이 여러 권 있다 보니까, 성안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영상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한번 보시면, 6·25 전쟁에 대한 서술을 보면 유엔군이 북한 땅에 쳐들어가서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을 막으러 왔던 군을 북한에 쳐들어간 점령군인 양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저기 중단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세우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북한의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쳐들어와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만 잡아들이고 인민을 착취하는 악질 지주들만 처단했습니까? 마치 의인인 것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을 수백만 수십만 학살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경험을 한 세대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 살아 있는데 이런 참고서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교재를 서술한 사람들의 주장이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비단 우파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뒤에도 한번 보세요. 빨치산 부분인데 이 빨치산들이 유격대 아닙니까? 당시에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 사실상 유격대 역할을 했는데 이런 유격대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양민의 학살이라든가 이런 희생은 별개로 하더라도 빨치산이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새로 서술하는 교과서에 이런 검증되지 않은 주장, 또 한쪽의 편향된 주장들이 그대로 실리는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이 책은 참고서가 아니라 개인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인용해서 참고서로 혹시 오해하신다면 그것은 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계의 중론에다가 국민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처리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갈등과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아까 질문이었어요. ‘고3 학생의 경우 대입수능의 객관식 출제로 인해서 교사들의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강길부 위원 그러면 오는 8월 달 교육위원회 할 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종합적인 입시의 전체계획 속에서 수능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지금 연구진에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능의 객관식 때문에 나오는 어려움,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서술·논술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지, 그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삼을지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진에서 연구해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고할 사항으로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교육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정성하고 변별력에 의문을 가지는 학부모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개혁을 이루었거든요, 일본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도 센터시험을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데 그것 전체를 서술·논술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서술식을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여하튼 이런 혼란은 제거가 되어야 되니까 교육부에서 잘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아니, 수능시험이 객관식인데 어떻게 토론·질문 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는 창의 교육에서 교육 방법, 교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 건물의 원형이 일본식 군대 막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잔재로 학교 안의 공간이나 건물의 배치는 오와 열이 잘 갖추어진 통제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지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면면히 이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육과 통제이고, 일자형 복도 건물 구조로 한눈에 잘 들어오게 해서 여러 명을 동시에 통제하고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일적 일사불란의 공간 구조는 어떤 개성도 어떤 차별성도 느낄 수 없고, 아이들의 상상력 또한 자극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감옥 같은 학교, 군대 같은 학교에서 과연 창의적이고 주체적

인 인재가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식민 통치 시대에 있던 잔재가 재편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학교 일과나 학생들의 교실 청소, 수업 전후의 종소리, 선생님에 대한 경례, 급훈, 교복 착용 그리고 암기 중심 시험과 성적에 따른 등수 매기기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학교 일상 풍경이 일제에 의해서 황국 신민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글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8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문체부에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디자인 컨설팅이나 시공 지원을 통해서 빈 교실 등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개선하고, 디자인·예술 교육이 가능한 문화 창작 공간 등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초·중·고등학교의 강당이나 도서관, 화장실이 창의적 공간으로 변모가 되었고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창의성이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이게 재정 당국 기획재정부에서 학교시설 조성 사업이 문체부의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예산이 한 번 삭감이,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문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문체부장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었거든요. 문체부장관님,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여하튼 건축은 예술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체부의 그런 것에서 이게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되었던 이유가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문체부에서 했느냐?' 이래 가지고 이게 중단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러한 창의적인 학교 공간 만들기 사업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 몇 분도 그런 공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간 혁신을 위한 시설 개선 그것을 프로젝트화해서 바로 금년 내에 그것을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공간이 학생들 학업에 주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디자인이라든가 공간 재배치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연구해 가고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 1분을 더 쓰셨어요. 더 쓰셔 가지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시지요.

○강길부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유성엽 예, 서면으로 하시지요.

○강길부 위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민기 위원님 차례인데 서면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따 추가질의보다는 서면으로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곽상도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10월 12일 날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교육부, 세종시에 가서 국정감사 할 때 교육부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 수사 요청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잘 기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이 당시에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박스는 53박스인데 26박스에 대한 조사만 해 보니까 찬성된 게 특정 정당에서 편파적으로 만들어진 게 많더라 그래서 수사 의뢰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 자료를 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곽상도 위원 그래서 그날 다른 나머지 자료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해 달라고 교육부장관한테도 요청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끝끝내 교육부장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때 여야가 합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랬습니다.

○곽상도 위원 교육부장관 얘기를 묻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이 거부했느냐고 묻잖아요!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 뒤에 다시 10월 31일 날 2차 국감 하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보여 달라고, 열람하게 해 달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곽상도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보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검찰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하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39만 9000장 정도가 정당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 11만 9000장,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28만 장이 제출되었다'.

왜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장관께서 어떤 특정 정당의 캠프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어서 그런 게 의심을 받습니다. 행정은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자료를 수사 의뢰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수사 의뢰해야 되면 공정하게 하자고 한 겁니다. 같이 그쪽 이쪽 자료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게 해 달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렇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렇게 드러나서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교육부 관료들, 이 보도자료 낼 때 관계 안 했습니까? 내용들 확인 안 했어요? 몇 달이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을……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부의 관료들,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솔직히 뒤에 있는 직원들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의 문제는 제출된 자료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검찰에 지금……

○곽상도 위원 장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곽상도 위원 공정하게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45만 장 중의 90%가 정당 쪽에서 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정 한쪽만 자료를 조사할 게 아니고 양쪽 다 공정하게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뒤에 앉아 있는 교육부 관료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렇게 하고도 그렇게 뻔뻔스러운 태도로 답변을 합니까?

인면수심이라고 아세요?

○김한정 위원 어허!

○곽상도 위원 '어허'라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진상이 석 달이면 드러날 것을 이게 뭡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고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사과할 일이 없다고……

사람이 해야 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그 보도자료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을 그마저도 그렇게 거부를 했잖아요, 이틀이나.

여기 배석한 교육부 관리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위원장 유성엽 자, 곽상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확인도 못 하

게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유성엽 왜 또 갑자기 위원장 진행 이야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곽상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의사록에 보세요. 의사록에 보면 위원장이 하신 것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또 나중에 대화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위원장한테 불똥이 너무 자주 와서 저도 항상 경계가 좀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든 질의하실 때 아무리 맞고 옳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표현들은 잘 순화해서, 다듬어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특정 교수가 논문에 자녀를 끼워 넣은 동향이 알려진 사실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병욱 위원 그 이후로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총 82건을 적발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이 조사는 교육부랑 대학이 나서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자진 신고를 받은 건수가 82건이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겁니다.

○김병욱 위원 자체 조사가 아니고요, 논문을 쓴 교수들한테 '당신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넣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서 그 사람들이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것을 그냥 자진 신고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단순하게 공저자로 등록한 게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될 교육 현장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일단 일차적으로 조사된 것을 구체적으로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청하신 전수조사 문제는 그동안 방학 중이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지금 벌써 두 달이 지났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병욱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전수조사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병욱 위원 장관님께서 왜 이렇게 교수들이 자기 논문에 자녀들을 끼워 넣어서 공저자로 등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게 가져오는 입시상의 이점도 있고, 물론 그중에는 입시와 관계없이 선의로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입시제도에서 빚어진 문제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욱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병욱 위원 그러면 과연 정말로 논문을 공저자로 등록할 만큼 충분한 자질과 소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논문의 공저자로 됨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봤다고 그러면 그 학생의 입학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그것은 확실히 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늦추어져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교육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진상조사에 들어가서 정말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교육 현장에서 정의롭고 올바르게 학생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장관님이 나서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두 달 동안에 보고 있으면 교육부가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도 냈고 TV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는 개학 때가 다 되었고 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욱 위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논문 대부분이 연구재단이나 국가의 연구비를 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 100억 원 정도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작성한 논문인데요, 사실 그러면 자녀에게 연구비를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진도가 나가다 보면 횡령, 배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저자로 등록된 자녀의 합격에 대한 처분 문제 그리고 연구비가 정말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연구비는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말씀하신 사안을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우리 교육, 특히 대학 입학에 있어서 이런 부정한 방법과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교육부에서 꼭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산하기관 아시아문화원의 이원화에 대해서, 비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게 일원화되어야지 효율성도 있고 좋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 우리 문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전당하고 문화원 운영 체계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처음 만들 때부터 타협해서 결국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그 당시부터도 알고 있었고요, 저희도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기간은 지금 2020년 4월까지 아특법에 의해서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양 조직 간의 업무 체계, 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이 두 기관을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원장 지금 공모하고 있지요? 다섯 분이나 공모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아직까지도 공모가 안 된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니요,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

○이동섭 위원 아, 무산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그리고 이게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괜히 2명 임명해 가지고 다음에 임기도 조정도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1원장 체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법을 개정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그쪽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관광공사 사장님이 아직 임명이 안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수지가 2001년 이후에 17년째 완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적자가 지금 무려 14조네요, 14조. 그런데 일본은 총리부터 내각, 지자체, 기업,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진흥책을 써서 지금 13조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이것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되느냐…… 물론 중국의 한한령도 있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 여

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 가 보세요. 그것으로 밥 먹고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원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관광국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일본이 이렇게 관광청을 만들면서 아베 수상이 직접 나서서 관광을 진흥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해야만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드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인 관광객도 줄고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제한을 받으면서 적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관광시장 다변화의 약간의 가능성 같은 것도 보았습니다. 북유럽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옴으로 해서 관광시장 다변화의 또 하나의 길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인지도라든가 국제신인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된 것도 관광과 연계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관광시장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대개 서울 제주 부산 경기 이 정도였는데, 경강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또 하나의 관광 축이 만들어졌다고도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국내 관광의 활성화 또 관광의 질적 성장 등등을 함께 고려해서 관광의 활로를 찾는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동섭 위원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얼마 안 남아서……

깜짝 놀라운 소식 하나, 신소식 알려 줄게요.

중국에요 작년에 태권도장이 1만 개가 생겼어요. 중국의 태권도 인구가 무려 1억이 되었습니다, 1억. 1억 명이나 되었다니까요, 중국이.

우리 국기원만 잘 만들어 놓아도 그 사람들 다 메카 국기원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방하듯이 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1억 명이나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신라왕경 복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라왕경 1조 500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여서 하는 것, 그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신라왕경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재청장입니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빨리 빨리 알아서 대답해야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계시나요? 내가 같이 교토 갔다 왔는데, 교토의 법륭사 같은 데 가 보니까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배워야 돼요, 일본한테. 문화재 보존하는 것, 관리하는 것 배워야 돼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지금 경주 월성이라든지 첨성대 지구 해 가지고요……

○이동섭 위원 제대로 보존하십시오, 보존 엉터리로 하지 말고.

○문화재청장 김종진 지금 새로운 환경이 형성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도 하고 계획되어 있는 복원정비 사업도 무리 없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 장관님, 서울에 있는 국기원으로는 1억 명 관광객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국기원을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으로 확실히 옮겨 가지고…… 소림사라는 데도 공항에서 버스로 3시간 걸리는 거리에 소림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소림사를 찾듯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국기원을 옮기면서 관광 자원화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여기 서울에 있는 국기원으로 1억 명이 오겠습니까, 관광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문제가 좀 풀려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거 하시면서 태권도원으로 국기원 이전하는 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교육부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지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의견수렴에 대해서 찬성의견만 고발한 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당시에 집단출력이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배 위원 아니, 의견만 말씀하세요. 지금 과정은 다 알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은 그때 보고받은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후에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견이 더 조작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이 제출된 게 훨씬 많은 게 검찰에서 발표된 것을 보고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그때 야당 의견대로 양쪽을 같이 다 고발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으로 몰아붙였구나라고 생각 안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게 하자인가? 조작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조직적으로 당에서 들어온 게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11만 대 28만 정도로 반대의견이 많다라면 뭔가를 느꼈어야지요, 양심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다라든지 보고받은 게 그거밖에 없었다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똑같으면 장관님 양심이 그냥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종환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주진오 역사박물관장님은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다. 너무 편향적이다' 하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스스로 교과서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수정명령 그 이후에 있었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 보니까요 10월 21날 했는데, 10월 달에 고쳤다 그러셨는데 교육부에서 10월 21일에 수정·보완 권고가 나간 거 보면, 이때 교육부에서 수정하라고 나갔어요, 10월 21일 날. 이거 보고서 10월 달에 수정한 거고 장관님 말씀하신 수정명령은 이미 고쳤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 안 된 겁니다. 교육부에서 수정명령 된 것은 11월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부에서 수정·보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고친 걸 가지고 자체, 스스로 고친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고 하신 겁니까, 위증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요.

○이종배 위원 여기 다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다시 한번 이것은……

○이종배 위원 잘못됐으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시고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종배 위원 주진오 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두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단일정부, 합법정부 승인한 거와 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이 2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시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합법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현재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

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앞으로 해……

○이종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교과서에 넣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찬반 양쪽을 다 넣든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넣지 말아야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마치 대한민국 군인들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것같이 이렇게 심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교과서에 집어넣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못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난 '100분 토론'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요. 잘못된 거 인정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틀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마지막으로 유은혜……

○이종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뭘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었고요.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다음에는 유은혜 위원님 오늘 마지막 보충질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김상곤 부총리님, 국정교과서 여론조작과 관련해 검찰수사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은혜 위원 아직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5만 장 중에 90%라고 했나요? 아까 28만 장이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는 정당에서 거리 서명도 받고 서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서명이었지요.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서명을 많이 받았는데 수사 의뢰한 내용의 핵심은 여론조작이었다는 거지요.

저희는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28만 장이든 45만 장이든 받은 것은 저희가 정당하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당시에 차떼기로 한 박스를, 정당에서 당원명부를 본인의 서명이 없이 엑셀파일을 그대로 갖다가 출력을 해서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마치 정당에서 제출해서 뭔가 여론이 조작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검찰수사가 밝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당시에 검찰에 고발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떼기로 통칭되는 집단적인 조작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발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자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교문위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때 교문위에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것은 저희가 당시에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여론이 훨씬 더 점점 높아지자 찬성여론을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것이 실제로 차떼기로 그렇게, 무더기로 제출됐다는 것이 의혹이 제기돼서 그것을 검찰에 수사 요구한 것이었고 저희가 그때 국정감사 할 때는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고 검찰조사에 의뢰하자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확한 사실관계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수사 결과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그 시안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자의적인 해석이나 성급한 결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금 집필기준과 관련해서는 대단원별로 서술 방향만 잡아서 서술 방향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중심으로 집필기준을 대강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집필기준 시안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대략의 서술 방향에서 구체적인 집필 유의점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치 뭔가 내용이 누락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연구 과정에서 나왔던 시안을 수정·보완하거나 명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지금 마치 이것이 뭔가 결론이 도출된 것처럼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앞으로 단계에 따라서 구체화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자나 출판사에게 위임할 사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마무리하시지요.

○유은혜 위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개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의견수렴 하셔서요 그 의견수렴 과정과 또 정리된 집필기준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또 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진을 구성해서 연구진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모아지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평가원안으로 만들어서 저희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 제출되면 학계의 중론과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과도한 예단이라든가 짐작들을 하지 않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어떤……

○곽상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 가운데 제가 내용을 호도했다고……

○위원장 유성엽 가급적이면 짧게 좀 정리해서 요지 위주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것은 특정 정당 쪽에서 낸 자료가 조작됐거나 왜곡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한 게 아니고 어느 당에서 낸 자료든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첫째 문제 삼은 겁니다.

누구라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이나 교육부 관리들이 왜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만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 이런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이러느냐고 얘기하지만 수사 결과 발표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8만 장이, 이쪽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집단적으로 제출이 됐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유은혜 위원 저희는 다 서명 받아서 낸 겁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유은혜 위원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수사 결과라고 그러십니까?

○곽상도 위원 아니, 발표했습니다.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유은혜 위원 중간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곽상도 위원 그걸 저한테 묻지 말고 찾아보세요.

○유은혜 위원 아니, 발표를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李恩宰 위원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니까, 지금. 몇 번씩 얘기해요?

○위원장 유성엽 자자, 위원님들끼리 말 주고받지 마시고.

곽상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중간발표가……

○李恩宰 위원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유은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보도만 있을 뿐이에요, 정확한 검찰수사가 아니고.

○곽상도 위원 아니, 잠깐만. 저하고 지금 따지실 일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성엽 잠깐 말씀 들으시고.

○유은혜 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니, 발언하실 때 이따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해 주세요.

○곽상도 위원 앞으로도 국회 우리 상임위나 국회의원들이 대접을 받으려면 정부나 저쪽의 답변하는 쪽에서 저런 태도나 저런 자세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존중받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편파적인 얘기를……

○위원장 유성엽 자,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정감사 받는 날 이런 자료를 들고 가서 국감장에서 그런 논쟁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게 저는 너무 한심하다는 겁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세요,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부총리님,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발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수사 의뢰는 45만 장을 다 하셨습니까, 일부분만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모두다 검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렇지요? 45만 장 전체가 검찰 수사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곽상도 위원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유성엽 잠깐 좀 들어보세요, 이게 명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으니까.

○유은혜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도 하면요,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1월 초인가 기사가 난 것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었고요. 한국당 의원님들이 다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45만 장을 다 수사하게 되었고 그중에 28만 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본다면 저희 당이 제출한 것이 많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서명을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떼기로 여론조작해서 냈던 그것을 한국당이 문제 삼고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렇습니다. 어떻든……

○곽상도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 것도 봐야 알지요. 28만 장이 차떼기가 훨씬 많잖아요. 28만 장하고 11만 장이 게임이 돼요?

○유은혜 위원 그 45만 장은 다 검찰에 제출했잖아요.

○위원장 유성엽 위원님들 간에 말씀 나누지 마시고 이 문제는 아까 유은혜 간사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지금 성급하게 먼저 예단하거나 자기의 희망이나 기대대로 발언하는 것은 자칫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하시지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쳤는데 제가 교육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서남대 폐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일단 청산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서남대 관련 사립학교법은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남대 의대 학생들은 전북대와 원광대에 175명 대 68명이던가 그 정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횡령 등으로 폐교가 될 때 그 횡령액만큼을 국고로 환수하자라는 개정안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장 유성엽 그것이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될 것으로 예정됩니까? 지금 확신합니까? 상정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보고는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상정된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정되었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최선을 다해야지요. 처리되도

록 최선을 다하는데 만약에 최선을 다하고도 처리가 안 되면 교육부에서 분명히 대답해 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면 그 돈, 횡령액 331억에 대해 이홍하 전 이사장한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책임이 해제되는 것 아니에요, 폐교가 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장 유성엽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한려대 아니면 신경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신경재단이나 서호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유성엽 만약에 그게 처리가 안 돼서 횡령액만큼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홍하 전 이사장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오래전에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한려대도 폐교해야 되고 신경대도 폐교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 대학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니 문제도 있지마는 그 돈을 국고로 끝내 환수하기 위해서는 한려대·신경대까지 다 폐교시켜야 돼요, 아주 엄격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엄격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서 내일 사립학교법이 법사위에서 잘 처리되고 또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만에 하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한려대와 화성에 있는 신경대를 반드시 폐쇄시켜 가지고 그 돈이 국고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장관님과 저와의 약속인데 이 자리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의 약속이고 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경대 폐쇄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장관으로서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확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폐쇄에 최선을 다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장 유성엽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몇 분들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셔서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어느 분들이 추가질의를 하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선교 위원님 또 이은재 위원님 또……

그런데 아까 사실은 오늘 저녁식사를 거르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 없이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동섭 위원 추가질의를 각 당에서 한 명씩만 하지요.

○위원장 유성엽 이종배 위원님, 아까 두 분이라고 그러시던데 다 손을……

○이종배 위원 둘만……

○위원장 유성엽 둘 누구로 할까요?

○이종배 위원 이은재, 한선교.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한선교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두 분 하시고.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김병욱 위원 우리는 안 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섭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추가질의……

○유은혜 위원 한 명만 해 주세요.

○위원장 유성엽 한 명 누구?

○유은혜 위원 박경미 위원, 하시지요.

○박경미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두 분과 박경미 위원님 그다음에 이동섭 위원님 네 분이시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님이 1분을 하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시고.

유은혜 위원님, 안 하시렵니까?

○유은혜 위원 1분……

○위원장 유성엽 1분, 좋아요.

그러시면 한선교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3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박성수 국장 계시지요? 여기 참석자 명단에는 있는데……

시간 없어요.

박성수 정책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가느라고……

○한선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출석자 명단에 적어 놨어요? 이거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죄송합니다. 미처

수정을 못 했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니, 항상 여기 적혀 있는 사람들은 날짜만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가교육회의가 열려서 거기에……

○한선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지요. 여기 '참석자 명단' 딱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왜 해 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거기까지는 수정을 못 했습니다.

○한선교 위원 참나……

이 양반이 장학 이쪽 담당하시나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고개를 끄덕임)

○한선교 위원 그렇지요?

이제 시간 보내시지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양반한테 아까 드린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용 장학금 이것을 갖다가 이번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 운영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용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장관께서 안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학연구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폐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한선교 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그런 것을 다 없애면서까지 대학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 또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입학금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들을 그런 쪽에서 끌어다가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차관님, 지금 계속 끄덕끄덕 하시지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을 박성수 국장한테 오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데 마침 그 양반이 오늘 안 올 건 또 뭐예요.

이것을 꼭 전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 꼭 연락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여기에 대한 약속을.

장관께서는 어린이집 영어교육도 선행학습의 일환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지금의 범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앞서서 배운다는 뜻이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영어는 선행학습이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한선교 위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 기준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경직된 생각을 가지지 마십사 하는 생각이고.

조기졸업 아직도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기졸업은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그 과정을 다 이수한 학력의 소지자들이 조기졸업을 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이들은 선행학습 안 한 것 같습니까? 한 거지요, 그것이 사교육을 통해서 했건 자습을 통해서 했건, 그렇지요? 여러 가지 모순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무 선언적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따님이 조지아텍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수 문제에 관한 것은 아까 제가 오전부터 자료 요청도 했었고 여기 한 장짜리 보내 주셨는데, 교육부에서 교육부 자체 감사 조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국감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선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일 사전에 교육부를 통해서 그것을 받는다면 저희가 또다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했던 것인데 안 하겠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 비리가 있다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3분입니다.

○박경미 위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부총리님도 관심이 지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으로 이것을 올리셨었지요? 그런데 신학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 돌봄 대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에 당첨되지 못한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교육부로부터 받은 가장 최근 자료가 작년 4월 것인데요, 돌봄교실을 신청했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시도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1만 명 가까이 되고요. 신학기를 앞두고 올해 탈락자는 구체적인 자료는 못 받았는데 작년의 2배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닌데 좀 더 미리미리 적극적인 대처를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교육부 주재로 22일에 회의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박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회의 내용을 받아 보니까 한 반 수용인원을 좀 조정하고 그리고 방과후 연계형 돌봄의 경우 대상 학년을 1·2학년까지 확대하는 것, 3~6학년에 1·2학년까지 포함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말씀하신 대로 온종일 돌봄체계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지자체와 함께 그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빨리 발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고 또 새로운 돌봄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조금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3월 중순쯤에는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지금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도 그것을 보고받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탈락했는데 그 부분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리고 문체부장관님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관련해서 미국 NBC 방송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오보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빠른 조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의 대외홍보 시스템 또 해외 언론 오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해외 언론 모니터링 그리고 오보 대응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개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파악하고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지금 문화원장하고 문화홍보관 이분들이 현지어 구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문화체육부장관님, 우리가 관광을 갈 때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요? 역사유적이나 천혜의 경관이나 그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는 메카나,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내가 중국 얘기하다 말았는데 중국에서 왜 태권도가 갑자기 1억 명이 됐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보고받았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중국은 공자·순자·맹자 공자사상 외에도 예절, 도덕 이것을 존중하는 나라인데 요즘 애들이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공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공자사상을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태권도를 시키면 애들이 예절, 부모한테 깍듯하게 예를 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장이 1만 개가 생기고 1억 명이라는 태권도 인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단증 수입이 한국으로 옵니다, 단증 수입이. 사범들이 가니까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태권도외교를 갔다 왔는데, 손혜원 의원님과 민경욱 의원과 같이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가니까 뉴욕에만 500개,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1000군데에서

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뭡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상원의원 아들이 너무나 버릇이 없었는데 태권도를 가르치고 나서 너무나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입소문이 나 가지고 그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게 소중한데 우리 게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게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세계 2억 명이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상품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바로 우리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권도가 단순한 무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끌고, 그리고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 제자들 한 100여 명 데리고 한국을 방문한답니다. 볼거리가 없답니다. 공항에 딱 내리면 태권도 메카이고 태권도의 종주국인데 어떤 옆차기하는 형상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공항에 내리면 태권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이상한 그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도 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안 온다는 겁니다.

2억 명이 태권도의 메카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관광 상업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태권도를 통해서 2억 명이라는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문제도 거론한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한데 모으고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정과제입니다. 이것 하나만 잘해도 관광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장관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를 관광과 연계시켜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재 위원님 3분 추가발언.

○李恩宰 위원 이번에 우리 교육부가 2018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런데 그 내용과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교육부가 현장 여론수렴 없이 추진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라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트도 온-교육 사이트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다수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만들어지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갈팡질팡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교육정책 때문에 사실은 저희 당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 올라가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내용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능절대평가 연기, 그다음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백지화 이렇게 정책을 내놨다가 연기 또는 철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바로 이 정책숙려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이런 것은 결국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아시지요?

이해하시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 교육부가 그동안에 교육정책을 계속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국민들의 반응 또는 쟁론들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과정이어서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李恩宰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정책숙려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용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관님은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교육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세심한 그런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책숙려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숙려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책숙려제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설계는 3월 중에 해서 본격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李恩宰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발언이 두 분 남으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먼저 1분 발언해 주시고 다음에 유은혜 위원님 1분 발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도종환 장관님, 전통무예진흥법 관장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종배 위원 장관님도 의원으로서 여기서 법을 만들면 정부의 무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계획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종배 위원 10년 전에 '문체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종배 위원 그런데 계획을 지금까지 안 만들어요. 아무런 계획도 안 만들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행정하는 게 없어요.

계획 만드시겠습니까? 용역 줘야지요, 이런 것을 용역 줘 가지고 전통무예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을 하고 그러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연구용역 예산 1억이 세워져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흥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할 텐데요.

도종환 장관님, 작년 12월 8일에 문체부에서 생활문화진흥원 명칭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바꾸겠다는 정관 변경 허가 승인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유은혜 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명칭 변경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역문화진흥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도, 제가 공간혁신과 관련한 제안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학교안전 예산이라든가 노후시설 개편하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될 때 차제에 공간혁신 학교재생프로젝트와 연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서면질의 검토하시고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체부 장관님과 문화재청장님께 동시에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요. 또 강원도지사도 평창올림픽을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끼고 있었는데 춘천 하중도의 레고랜드 문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제대로 개발될 전망이, 그 개발조차도 전망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것 매듭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 개발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치르느라고 경황들이 없으시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안 드렸

습니다마는 선사시대 유적, 초기 삼국시대 유적을 그런 식으로, 레고랜드 개발한다고 그래서 방치해 버리다시피 하는 것은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출범을 힘차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 그것도 잘못하면 적폐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로잡아서 역사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민간들 매몰비용 있으면 국가에서 예산 세워서라도 보전해 주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다.

장관님과 청장님의 마지막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강원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안도 있고요. 원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전부터 동의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강원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문화재청 소관이지만 장관님께서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청장님도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지금까지 죽 진행돼 온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민석 위원, 조승래 위원, 유은혜 위원, 김석기 위원, 전재수 위원, 염동열 위원, 이철규 위원, 장정숙 위원, 이장우 위원, 노웅래 위원, 손혜원 위원, 신동근 위원, 이종배 위원, 나경원 위원, 박경미 위원, 김세연 위원, 전희경 위원, 이은재 위원, 강길부 위원, 김민기 위원, 오영훈 위원, 한선교 위원, 김병욱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정 위원님도 추가합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곤 부총리님, 도종환 장관님 또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길부	곽상도	김민기	김병욱
김석기	김세연	김한정	나경원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염동열	오영훈	유성엽
유은혜	이동섭	이은재	이장우
이종배	이철규	장정숙	전재수
전희경	조승래	한선교	

○청가 위원(1인)

조훈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조의섭
전문위원	정순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김상곤
차관	박춘란
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석
대변인	임창빈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중현
감사관	김청현
정책기획관	김태훈
국제협력관	최영한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직업교육정책관	김영곤
학교혁신정책관	최은희
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학생지원국장	정인순
평생미래교육국장	최은옥
교육안전정보국장	류정섭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제1차관	나종민
제2차관	노태강

차관보	김희경
기획조정실장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우성
국민소통실장	박정렬
정책기획관	황준석
예술정책관	이영열
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관광정책국장	금기형
체육국장	오영우
체육협력관	전병극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주진오
국립한글박물관장	박영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이용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양현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윤금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준
영화진흥위원장	오석근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이승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한국문화정보원장	이현웅
국립오페라단예술감독	윤호근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
사무총장	전충렬
문화재청	
청장	김종진
차장	김현모
기획조정관	강경환
문화재정책국장	이경훈
문화재보존국장	윤순호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종덕
국립무형유산원장	조현중

【보고사항】

○교섭단체 구성

바른미래당

(2018. 2. 19.)

○교섭단체 가입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2018. 1. 9.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위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유성엽	국민의당	탈당	2018. 2. 5.
송기석	국민의당	탈당	2018. 2. 8.

○교섭단체 해체

국민의당

(2018. 2. 19.)

○중앙당 등록 통지

2018. 2.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민주평화당이 중앙당으로 등록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명칭	대표자	연월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2018. 2. 7.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8. 2. 8.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기석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중앙당 신설합당 통지

2018.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 통지가 있었음

명칭	합당한 구 정당	연월일
바른미래당	국민의당·바른정당	2018. 2. 19.